

경남 공공도서관 종합소식지

도서관 가는 길

제18권 1호 (통권 24호)

- | | | | |
|----------------|------------------|-------------------------|--------------------|
| 02 • 독서칼럼 | 10 • 도서관 특색 사업 | 14 • 직원 · 이용자 글마당 | 20 • 별난 도서관 별난 이야기 |
| 04 • 해외도서관 연수기 | 12 • 경남 공공도서관 소식 | 17 • CEO가 권하는 책 | 22 • 주제별로 만나는 입문서 |
| 06 • 요즘 도서관에서는 | 13 • 도서관계 소식 | 18 • 유네스코 등재 우리나라의 기록유산 | 23 • 경남독서한마당 안내 |



창원도서관
Changwon Public Library

독서와 꿈



1973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저녁이미지』, 『사전을 뒤적이며』,
『나를 운반해온 시간의 발자국이며』
산문집 『질문의 품위』

강릉문화관 관장 이우걸

1972년 가을이었다. 나는 월간 『고시계』를 사러 서점에 들렀다. 서점 여기저기를 돌며 새로 나온 책들을 둘러보다가 『현대시조』라는 계간잡지를 발견하곤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조 전문지도 이제 출간되고 있구나 하는 놀라움 때문이었다. 어릴 때 외우기를 좋아 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교과서 이곳저곳의 고시조를 모필로 써 드렸던 추억이 있어서 시조라는 장르와 친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더 반가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시간 날 때 읽어 보자 싶어 『고시계』, 『현대시조』 두 권을 사 가지고 왔다.

어느 비오는 날이었다. 멍하니 법률서적들을 읽고 있다가 불투명한 미래에 승부를 걸고 있는 자신에 대한 회의와 외로움 때문에 전에 사왔던 『현대시조』가 읽고 싶었다. 처음부터 건성건성 작품을 읽어나갔지만 사실 대부분의 작품이 눈에 들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유난히 아름다운 시조 한 편을 발견했다.

여미어 도사릴수록
그리움은 아득하고

가슴 열면 고여 드는
겹겹이 먼 하늘

바람만 봄이 겨울네
옷자락을 흔든다

이영도 시인의 작품 「모란」이었다. 이 시조에 매료되어 나도 두 편의 작품을 써서 학보사에 투고를 했다. 어느 날 나의 작품이 발표되고 그때 우리학교의 교수로 계시던 김춘수 시인의 지도를 받아 시인이 되었다. 참으로 우연한 방향 전환이었지만 나는 오늘의 현실에 만족할 뿐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 삶의 변화는 결국 누구의 조언이나 계획적인 충고와 지도가 아니라 오로지 책과의 인연에서 비롯되었다.

세상을 흔히 사막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도자들이 속세의 여러 번뇌를 표현하는 은유로 그렇게 말 할 때도 있고 세상살이의 어려움 때문에 이 세상을 정말 사막으로 느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충분히 의미 있고 보람을 느껴서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나는 후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능력과 취미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해서 그 일로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획득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사막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함께 만나고, 함께 일하고, 즐길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사막일 수 있을까. 남의 가치관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 직업도 사회활동도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선택되어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사막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독서가 중요하다. 독서의 생활화가 중요하다.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은 스스로에게 어울리는 꿈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이 열어 보이는 여러 세계를 간접 경험하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령 어휘력이 향상된다거나 상상력이 풍부해진다거나 세계가 넓어진다거나 다른 세계를 알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거나 자신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내가 꿈을 강조하는 것은 요즘 학생들이 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이다. 흔히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글쎄요”라는 대답을 하는 학생이 의외로 많다. 꿈은 나이가 들면 희망으로 서서히 구체화되기 마련이고 그 희망도 고학년이 될수록 현실적으로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바뀌어도 열렬히 좋아하는 자기의 꿈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학과가 선택되고 학교가 선택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은 그렇지 않다. 지나치게 현실적인 눈으로, 부모의 강권으로, 자신의 수능점수나 학력으로, 사회 일반의 눈으로, 눈앞의 이해관계에 맞추어서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런 선택의 오류가 종내에는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과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게 하여 이 세상을 사막으로 만든다.

책을 통해서 꿈을 찾아야 한다. 그런 중요성 때문에 세계의 위대한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구운몽」, 「사씨남정기」로 유명한 조선 현종 때의 사람인 김만중의 어머니는 선조의 딸 정혜옹주의 손녀 윤씨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청상과부가 된 윤씨 부인은 몸소 베를 짜고 수를 놓아 번 돈으로 아들에게 책을 구해 주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병자호란을 치른 지 얼마 안 되어 책 구하기가 힘들었지만 「맹자」, 「중용」, 「시전」, 「소학」, 「사략」등을 사거나 빌려서 읽혔다.

조선 명종 때 급제한 양사언은 서출이었지만 어머니 안변댁의 독서지도로 입신하고 명필로 후세에 이름을 날렸고 한 때 케네디 왕조라고 불렸던 케네디가는 존 형제의 어머니 로즈여사의 독서지도로 9명의 자녀를 지도자로 배출시켰다.

켄터키주의 통나무집에서 살았던 링컨은 두 어머니의 도움으로 책 속에서 길을 찾아 노예를 해방한 미국 16대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 보건부 보건담당차관보를 지낸 장남 고경주, 미국 예일대 법대 학장을 지낸 삼남 고흥주 등 6남매를 미국사회의 덕망 있는 인재로 키워 가정교육의 성공사례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전혜성 박사의 경우 집안 곳곳에 책을 꽂아놓고 어디에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스스로도 자녀들과 함께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독서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자신과 비슷한 꿈을 실현해 온 세계 여러 인물들의 삶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생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교양서적, 전문서적을 망라한 폭넓은 독서가 필요하다. 자신의 가치관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얻어 그리는 청사진은 진정한 애서가라면 누구의 도움 없이도 만들 수 있는 가슴 설레는 생의 설계도이다. 꿈을 갖게 하자. 책을 읽게 하자.



2010 IFLA 대회(지식의 자유로운 여행) 참가기

-스웨덴과 발틱 3국 도서관 견학을 중심으로-



조 명 속 (양산도서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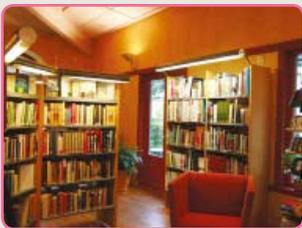


인구 약 1000만여 명으로 유럽에서 4번째로 땅이 넓은 나라, 국민소득 4만불의 스웨덴, 한 때는 세계 2위의 국민소득을 자랑하던 국가이다. 다이내마이트를 개발하여 수익의 부를 창출할 수 있었으며 또한 과학자로 잘 알려진 노

벨과,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그들의 음악이 리바이벌 되고 있는 세계적인 가수 ABBA를 배출 한 나라, 안나 카레리나 등의 유명작품 출연과 뛰어난 미모의 육체파 또는 이지적 배우인 그레타 가르보 그리고 세계적으로 뻗어있는 자동차 회사인 볼보의 본사가 있는 곳, 이렇게 다양한 유명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2010년 세계도서관 정보대회는 이와 같이 유럽에서도 선진적인 나라인 스웨덴의 제2의 도시(인구 50만) 예테보리에서 개최되었다.

세계도서관 대회의 주제는 'Open access to knowledge'로서 '지식의 자유로운 이용'으로 글로벌시대에 맞추어 세계 모든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쉽게 하고 또한 모두에게 개방을 하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나름 생각을 해보았다. 여기서는 IFLA 주관으로 방문한 도서관 중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들에 대한 나의 소감을 밝혀 보고자 한다.

볼레비그 마을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인구 7000여명의 조그마한 마을도서관으로 과거 어느 개인(의 사출신)의 저택을 도서관으로 기증, 리모델링하여 마을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인 가이드의 안내멘트에서도 강조되었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자연스럽게 실행되는 경우에 해당되었다. 우리나라의 거부들도 이처럼 도서관 문화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잠시 생각했다. 푸르른 녹색 공간 속에 아담한 도서관이었으며 시에서 관리 운영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지역의 학교도서관과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도서 선정은 물론 자료도 함께 공유를 하고 있다고 했다. 눈에 띄게 돋보이는 부분은 비도서 자료들이 자유롭게 이용·대출 된다는 점과 또한 이 자료들이 가장 눈에 잘 띄는 앞쪽에 비치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CD, 음반, DVD 등의 자료는 무

슨 보물단지처럼 은밀한 곳으로 꼭꼭 숨겨놓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었다.

이어서 협력도서관인 학교도서관도 함께 방문하였다. 꾸며진 공간의 구성은 우리네 학교도서관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었으나 질적인 서비스면은 교사 및 학생들을 위한 협력지원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서와 각 과목 담당교사와 공동 수업도 많이 진행된다고 하였다. 이 학교는 0학년(유치원)에서 9학년까지 있는 학교로서 도서관 근무자만도 5명이라고 한다.

마을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모두 이용자가 찾는 도서가 다른 지역의 도서관에 있을 경우 가까운 곳은 경비 아저씨가, 먼 곳은 우편으로 본인 부담 35%를 지불하고 원하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한다. 학교도서관의 분류표 라벨은 숫자가 아닌 기호 또는 그림으로 표시하여 학생들이 쉽게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수준에 따라 반영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베스트라 프리룬다 도서관 및 문화센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파워포인트로 간단한 설명과 더불어 견학의 시간을 가졌으며 마치고 점심식사까지 대접을 받았다.

이곳은 서울의 마포 평생학습관 또는 우리지역의 장유도서관

과 비슷한 곳이었다. 도서관과 문화센터가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은 1층 입구 왼쪽에 위치되어 있었으며 모든 자료가 한실에 모여져 있었다. 자료유형 또는 주제별로 분류하여 비치해 놓았으며 유아 및 어린이 자료는 조금 구석진 곳에 반개방형으로 꾸며져 있었고 간행물 및 비도서 자료들은 접근하기 쉽게 카운터와 가까운 앞쪽에 비치되어 있었다. 이 하나의 공간 내에 약 10만 여종의 자료가 모여져 있었으며, 중간 중간에 안내 데스크를 만들어 이용자들의 질의에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공간구성이 설계되어 있었다.

장서를 점검한다는데 대한 개념조차 없었으며 분실물 또는 연체자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도 거의 없다고 하였다. 이는 곧 국민들의 의식수준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이용자도 1일 평균 1000여명 정도로서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라고 했다.

다음으로는 같은 건물 내에 있는 문화센터 시설들을 둘러보며 설명을



대한 소개를 할 때는 직접 춤을 춰가면서 설명하는 여유를 보여주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예테보리 시립도서관



지금까지 본 도서관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도서관이었다. 공공도서관 근무자로서인지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본 대학, 학교, 마을도서관 등과 비교 해 볼 때 모든 면에서 현대화는 물론 가장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아닐까 싶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로서, 1층부터 3층까지 중앙부분은 자연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뚫려 있었다. 도시 한복판이라 주변이 공원처럼 꾸며진 것은 아니나, 측

면 광장에서는 축제 기간이라 매일 저녁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고 도서관도 이 기간동안(FLA개최 또는 축제를 이유로)은 24시까지 개방되어 있었다. 그러나 평소에는 아침 10시부터 요일별로 오후 5시 또는 7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었으며 토요일은 1시까지, 일요일은 쉬는 날이었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이와 동일했다.

이 도서관의 시설을 둘러보면서 함께한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도서관은 이렇게 구성되고 꾸며져야 된다고 감탄을 자아냈다. 도서관을 들어서니 1층 입구 좌측의 한 실에서 댄스교실이 시간대별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축제기간이라서,...) 입구와 마주한 곳에 안내 데스크가 있어 번호표 발행을 통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조금 번잡한 느낌이 들었으나 누구하나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았다.



또 다른 옆 공간에는 자동 반납대가 5~6개 있었으며 반납과 동시에 자료가 자동 분류되는 기계의 작동으로 지하실에 비치된 박스에 구분되어 담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린이 및 유아를 위한 공간은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1층 뒤쪽으로 위치하여 소란을 피할 수 있게 해놓았다

그리고 안내 데스크 옆에는 안내표지가 붙은 예약도서 몇 개의 서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이용자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계단입구에 검색대 및 인터넷까지 가능한 컴퓨터들이 3~4대씩 비치되어 있고, 안내 사서들은 사방입구를 중심으로 좌·우의 데스크 앞에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자료들은 주제별로 트여진 사각 중앙을 중심으로 사면의 넓은 공간에 정리되어 있었고 이용자를 위한 책상들도 서가 사이사이에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서가의 끝부분에 검색 PC가 붙어져 있어 정말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층까지 모든 곳이 이렇게 꾸며져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개인 학습을 위한 별도의 열람실은 없었으며 전 공간이 자료들도 가득 차 있었고 자료와 함께 학습 연구를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 이상적인 공공도서관이란 바로 이러한 도서관이 아닐까 싶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민원 발생 근원지인 개인 공부방 역할을 하고 있는 열람실이 사라질 수 있는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무그들이 있는 야외 휴식공간과 도서관매점이 연결되어 있었다. 1층 입구에도 북카페가 있어 간단한 식음료 해결을 할 수 있어 하루 종일 있어도 지겹지 않도록 설계된 도서관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의 설명이 없어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화장실은 지하 1층에만 있었으며 화장실 앞 빈 공간에는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체스 등의 오락기구들이 놓여있어서 음료를 마시며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늦은 시각에도 제법 있었다. 또 다른 공간으로 가니, 나

리투아니아 국립도서관



리투아니아(인구 350여만명)수도인 빌리우스에 있는 국립도서관도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모두를 둘러볼 수는 없었으며,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은 고서 또는 희귀본 중 퇴색되거나 곰팡이가 피어난 문제 있는 도서를 복구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보여 주었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직원 입장에서 볼 때, 병을 치료하는 의사처럼 하얀 가운을 입고 작업하는 모습이 대견스럽고 대

단히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은 상당히 이색적인 느낌을 받았다.

14박 15일의 일정, 처해진 상황에 따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동안 나에게서는 북유럽의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다. 여행이라고 하면 3번의 즐거움을 느낀다고 한다. 첫 번째는 출발 전 준비기간 동안의 설렘, 두 번째는 여행기간 동안의 행복감, 나머지 하나는 돌아와서 사람들과의 추억을 사진을 보며 여운을 회상하는 즐거움이라고 한다.

14박 15일 동안의 행복과 즐거움이 나에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기간 내내 시원한 곳에서 여유를 즐기다 인천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뜨거움과 출근하자마자 제기되는 민원이 나를 정신없게 만들었다. 사진 정리도 좀 시원해지면 하려 하는데 이 더위가 언제 사라질지..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줄리라 믿으며 행복한 기억속으로 돌아가려 애를 써본다.

주변의 도움으로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다.



도서관 행사

제47회 도서관 주간(4. 12~4. 18)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까운 도서관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거 제

도서관 주간 행사

당신의 정보를 알려주세요, 사랑의 책 나누기(과월호 정기 간행물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사회복지단체 전달), E-book 독서 퀴즈, 마음을 치료하는 책 전시회

기타 행사

2011 북스타트, 자원봉사단 5기 모집 및 운영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스토리텔링, 냅킨아트

어린이: 위풍당당 자신감 있게 말하기, 독서미술

토요휴업일: 독서일기장 만들기, 내가 만드는 캐릭터 비누, 생활 속의 과학실험

거 제 시립 목 포

도서관 주간 행사

나도 주인공, 독서신문 만들기,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도서관에서 책 읽는 사진응모), 행운의 주인공

기타 행사

4월 5일(식목일) 기념 작은 화분 나눔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동화구연 자격증반

어린이: 동화구연, 조이매스(교구수업)

거 제 시립 상 승 포

도서관 주간 행사

내가 동화 속 주인공, 책이 아파요(파손도서 전시), 책 나누미, 만들어 보아요

기타 행사

4월 5일(식목일) 기념 꽃화분 나눔

상반기 문화강좌

어린이: 동화구연, 즐거운 한자교실

거 창

도서관 주간 행사

자료실별 권장도서목록 배부, 독서퍼즐, 독서퀴즈 응모 및 당첨자 상품권 시상, 친구야! 도서관 가자, 도서관 및 독서관련 특강 1회

기타 행사

독서회(일반, 어린이) 운영, 이야기 들려주는 도서관, 이야기가 있는 그림 전시회(6. 1~6. 30)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플룻 또는 오카리나, 수채화

어린이: NIE

가족: 종이접기



이야기 들려주는 도서관

거 창 관립 한 마 음

도서관 주간 행사

'가장동화읽는어른'의 '그림자극', '인형극'공연, '눈이 즐거운 예쁜 책표지' 서평전시, 모범다독자 시상, 열려라! 책! 팝업북 전시, '책, 즐겁게 듣자'(오디오북 읽고 온라인으로 한글 감상평 쓰기), 'LOVE LOVE LOVE' 추천도서목록 배부

상반기 문화강좌

실버: 주역

일반: 포토샵 기초, 도서관 커미스쿨

유아: 빅차일드 영재스쿨

토요휴업일: 점토야 놀자, 오르다 게임놀이, 영어 사자소화



빅차일드 영재스쿨

거 창 시립 자 정 보

기타 행사

시각장애인 자연학습체험(6월중 남해 편백자연 휴양림 탐방)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시각장애인 정보화 교육, 재미미술 손과 함께(미술치료), 귀로 듣는 독서치료,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양성 교육, 시각장애인 탁구동아리, 시각장애인 등산



귀로 듣는 독서치료

고 성

도서관 주간 행사

내가 독서왕(다독자 선정 및 시상), 공룡나라 도서관 사랑 퀴즈 대회, 봄에 읽어오 (권장도서목록 배부), 공룡나라 소식지 배부 및 현수막 부착, 신나는 책속나라 여행(동화구연가와 함께하는 책 놀이)

기타 행사

독서동아리 '도담도담' 운영, 어린이 독서 퀴즈왕 실시, 영화로 여는 세상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예쁜글씨 POP, 일어생활회화

청소년: 참새방앗간

어린이: 동화구연, 어린이 독서논술, 어린이 예쁜글씨 POP

유아: 동화구연

김 해

도서관 주간 행사

도서관 베스트 프렌드 되기, 갑벙어린이 원화전시, 과월호 잡지 나눔 행사, 나무랑 친구해요(북아트), 책에 별을 달자(한울 서평과 별명점 매기기), 독서 치료도서 전시, 모범이용자 표창 및 간담회

기타 행사

책향기 꽃향기(세계 책의 날 대출자 장미꽃 증정), 호호할머니의 이야기(보따리동화구연), 북 & 플레이, 월별 테마전시, 한 달에 한 책 읽기(12 독서운동 -한달에 한권 일년 열두권 책 읽기), 개관 기념 저자 초청 특강, 도서관에 처음 왔어요, 독서신호등(유아 단계별 독서활동), 그림책 읽어주는 Mom!, 동화랑 ABC(영어동화 스토리텔링), 인형극 공연, 초등 독서삼품제, 독서고개길 오르기, Fun! Fun! 그림책 여행, 화 쫓리는 이 책 제목이 궁금하다, 꿈나루 도서관체험

상반기 문화강좌

실버: 실버레크레이션, 실버기체조

일반: 자녀학습 코칭, 엄마표 인형극, 신문화교육용, 독서지도, 역사논술(한국사), 예쁜글씨 POP, 생활법률, 연필화, 실용한자, 도예교실, 생활원에 베이비요가, 영 어회화, 일본어회화, 중국어회화, 웰빙요가, 독서북아트2급

어린이: 자신만만 스피치교실, 역사 타임머신, 꿈꾸는 과학자(저·고학년), 꽃말 참맛 독서, 필승! 스스로 학습, 로봇박사, 우뇌개발 속독교실(초·중급), 마음이 열리는 책읽기, 동화로 배우는 영어, 세상만사 NIE, 도전! 한국사 열

유아: 행복한 그림책 여행, 기초탄탄 파닉스 영어

가족: 함께하는 공작교실, 동화속 미술학교



북 & 플레이

김 해 장 유

상반기 문화강좌

실버: 스포츠댄스, 서예교실

일반: 자녀교과 NIE, 종이접기지도사 초급반, 성인 미술반, 한지공예, 스포츠댄스 중급, 오카리나, 플루트, 기타교실, 동화구연지도사, 일본어 기초회화반, 일본어 초급반, 내아이 독서 논술 글쓰기 지도반, 한지지도사, 스포츠 댄스, 맛있는 생활영어, 국경교육용 상용한자(공인3급수준), 교양 한문교실(명심보감), 뫼생기초반, 요가 기초반, 노래교실, 영어회화 중급반, 사군자, 생활일본어(프리토크링반), 포인트 POP, 예쁜글씨 POP, 재미있는 손바느질, 영어그림책을 통한 자녀영어지도반, 중국어 중급반, 중국어 왕초보반, 수지침, 영어회화 왕초보반, 인사부태교동화, 통가타 교실, 클레이 자격증(아근), 요가(아근), 영어회화 초·중급반(아근), 예쁜 글씨POP(아근), 댄스댄스(아근), 주산암산지도사과정(아근), 일본어 히라가나 개강반(아근), 동화구연지도사(아근), 색채심리지도사(아근)

어린이: 쿠키클레이, 키크는 무용, 역사체험논술, 지리체험논술, 칼라클레이&쿠키 클레이, EQ썩썩 그림책 논술, 독서와 글쓰기, 초등기예, 주산식 암산수학, 어린이 종이접기 자격증반, 초등 영어동화 리딩반, NIE, 두뇌개발 한자교실, 카프라로 배우보는 조형놀이, 발표력 향상 동화구연, 종이접기와 플레이콘, 신나는 조형미술놀이, 맥스맥, 초등 그림반

유아: 영어인형극 블루콩 잉글리쉬, 쿠키클레이, 유아종이접기, 레고부브브리너, 레고구조학습, 칼라클레이 & 쿠키클레이, EQ썩썩 그림책 논술, 리틀댄스, 주산식 암산수학, 레고닥터부브브리너, 레고구조학습, 레고구조기계, 오르다, 팀업, 자신감을 키우는 동화구연, 영어 동화반, 유아파닉스(첫소리반), 신나는 과학실험 교실, 버그박사, 자석인체도형놀이, 그림동화 미술, 맥스맥, 영재놀이터 플레이 스쿨, 엄마랑 함께 하바가베, 리틀챔프, 에어클레이 놀이미술, 뮤직가튼, 레고 베이비집, 동화랑놀자

김 해 진 영 한 마 음

도서관 주간 행사

가족 동극 '옛날옛날 한 옛날에', 추억이 있는 그림책 '동네 사친관의 비밀' 원화전시, 영화로 만나는 그림책(그림책이 원작인 영화상영), 나만의 도서관 가방 만들기, 어린이 1일 사서체험

기타 행사

어린이 및 청소년 독서회, 주부와 함께하는 '어린이 책 작가별 책임기', 주부 독서치료모임, 책나라 독서교실

상반기 문화강좌

실버: 실버요가, 노래교실

일반: 성인동화구연, 예쁜글씨 POP, 몸과 마음이 행복한 요가, 가아금, 우리아이를 위한 독서와 글쓰기 지도, 생활영어, 일본어, 속성한자, 중국어회화, 서양화, 수지침

어린이: 초등 수채화, 종이공예, 독서와 글쓰기, 만들어 체험하는 재밌는 역사교실, 놀이로 배우는 초등 파닉스, 퀴리의 신나는 과학놀이, 신문이랑 놀자 NIE, 초등 영어일기쓰기, 말랑말랑 통통 칼라클레이

유아: 영재 놀이터, 동화랑 놀자, 미술로 크는 아이 키즈&아트



어린이책 작가별 책임기

도서관 주간?

-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정한 4월 12일부터 18일까지의 일주일을 말한다.
- 독서관련 체험행사나 인형극 공연, 저자 초청 강연회, 추천도서목록 배부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여 이용자와 함께 즐기는 도서관의 축제로 올해 47회를 맞이한다.

감해 칠암

도서관 주간 행사

'옛날이야기'로 보는 '흑부리영감' 등극공연, 수확동화 특별 영화 전시회, 정자명함 만들기, 권장도서목록 배부

기타 행사

계층별 독서회, 북스타트 프로그램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한지공예, 이현주 노래교실, 성인 동화구연 지도사, 손바느질, 리본아트&선물포장, 스포츠댄스, 한국화, 수지침&서금요법 입문, 예쁜글씨 POP, 생활역학(사주명리학)

어린이: 두뇌개발한자교실, 신나는 주산연산암산교실, 수채화교실, 스피치교실, 종이 접기, 신나는 과학실험교실, 허바가베, 영재퍼즐&보드게임, 꿈꾸는 독서영재, 동화구연, 영어동화구연, NIE 신문으로 배우는 논술, 어린이스피치교실

유아: 베이비 마사지&요가, 그림책이랑 오감쑥쑥, 신나는 칼라클레이, 즐거운 영어마더 구스, 영재놀이터 플레이 스킵, 엄마랑 함께하는 동화체험놀이, 오감신체발달놀이, 동화구연, 레고덕다, 신나는 과학실험교실, 종이접기, 오감자극체험놀이 미술, 리틀 꿈꾸는 독서영재, 영어동화, 생각통통 유아창의미술, 신나는 주산연산교실, 전문수학교육 피비우스



한지공예

마산합포

도서관 주간 행사

권장도서목록 배부, 마음이 따뜻한 두시간(도서관을 배경으로 한 영화상영), 동화날말퀴즈(아동), 연세 도서 일제정리, 독서지도강좌(성인)

기타 행사

가고파어린이독서회, 일일도서관학교, 북스타트 영어강좌

상반기 문화강좌

실버: 실버한글반

일반: 서예, 문인화, 단학, 요가, 한자교실, 연필인물화, 필트&패치워크

어린이: 클레이아트, 자신감을 키우는 스피치, 영어동화랑 놀자, 독서미술



문인화

마산회원

도서관 주간 행사

특별강좌 및 인형극공연, 그림책 원화전시, '박완서 작가 코너' 운영, 권장도서목록 배부

기타 행사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일일 도서관현장학습, 별빛어린이독서회(유아 및 초등저학년)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생활 속 일본어 기초, 영어스토리텔링

어린이: 영어구연동화, 과학실험교실, 독서미술교실

감해 화정글샘

도서관 주간 행사

그림책 '용돈주세요', 원화전시, 그림책과 함께하는 캐릭터만들기, 빛그림 교실 운영 (옛이야기를 주제로 빛그림 제작방법, 주제에 따른 이야기 나누기로 진행), MLE 수업 (초등학생 대상으로 과학 집지를 활용하여 신문기자가 직접 수업진행)

기타 행사

책사랑 이벤트 '나도 독서회왕중이 있다', 어린이·청소년 독서회, 빛그림 교실 운영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초급 영어회화, 손으로 짓는 이야기(손바느질), 동화구연, 그림책읽기, 초급 일본어 회화, 중급 영어회화, 예쁜글씨 POP, 초급 중국어회화, 자녀교육 NIE, 종이로 만드는 생활소품, 동화구연 지도자과정(정주·아간)

어린이: 글쓰기, 독서치료, NIE, 독서미술, 어린이스피치교실, 도형과 함께하는 수학 가베, 신나는 칼라클레이, 과학교실, 동화구연, 영어동화읽기

유아: 그림책 놀이미술, 독서미술, 베이비 레고, 도형과 함께하는 가베놀이, 동화와 함께하는 레고, 꿈꾸는 독서영재, 신체표현놀이, 동화점목 신체발달놀이, 영어 인형극, 그림책읽기, 동화구연, 어린이스피치교실, 종이접기, 생각쑥쑥 창의력 쑥쑥, 영어동화읽기, 과학교실



동화세상

밀양

도서관 주간 행사

밀양도서관은 내 친구 퀴즈대회, 인형극 공연, 어린이 독서퀴즈대회, 권장도서수집 제작·배포

5월 가정의 달 행사

온 가족이 함께 만드는 쿠키, 인형극 공연, 가족 독서퀴즈 대회

기타 행사

매월 '이 달의 독서왕 선정'·시상, (세계 책의 날) '장미꽃 나누기', 동화세상(어르신동화구연동아리 '이야기보따리'에서 유아 및 초등저학년에 책 읽어주기, 동화구연, 손유희 활동)

상반기 문화강좌

실버: 신바람 노래교실

일반: 영어회화, 한자급수대비반

청소년: 독서논술

어린이: 영어스토리텔링

유아: 동화나라 주인공

남지

도서관 주간 행사

권장도서목록 배부, 신나는 과학실험, 옛 이런 도서관(도서관사진 전시), 영화상영

5월 가정의 달 행사

온가족 쿠키 만들기, 신기한 버블쇼 공연, 가족영화 상영, 사랑의 편지 쓰기, 가족테마도서 전시

기타 행사

세계 책의 날 기념품 증정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서예교실, 수묵화, 동화구연

유아: 글밥으로 그리기, 글밥으로 만들기, 토요휴업일: 똑딱 똑딱 나무공예, 동전지갑 만들기, 클레이로 만드는 책 속 이야기, 냅킨아트



온가족 쿠키 만들기

사천

도서관 주간 행사

도서기증 아름다운 책가게(시민도서기증운동 및 과년도 정기간행물 판매), One Book 책공감(어린이/중·고/일반도서 각 1권 선정 공감 나누기), 두근 두근 책장 숲은 책 찾기, 책이름 릴레이(책이름을 연결한 짧은 글짓기), 축하해요! 어린이 독서동장, 책이(어린이 상향별 독서치로목록) 리플렛 배부, 도서관과 관련한 가족영화상영

5월 가정의 달 행사

문중호 강사의 '우수한 아이는 부모가 만든다!' 강연회, 다문화도서 전시

기타 행사

(세계 책의 날 기념) '세계의 책들을 만나요~'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디지털과 사진, 시청각교실, 부동산과 건강(양택풍수), 명상과 자기치유

유아: 영어스토리텔링



영어스토리텔링

남해

도서관 주간 행사

기념품 배부(선착순 기법 배부), '책 읽는 가족' 시상, 과년도잡지 및 기증도서 무료 배부, 초등·청소년 대상으로 독서퀴즈

기타 행사

성인 대상으로 특별강좌 개최

상반기 문화강좌

실버: 컴퓨터교실, 액셀지격증, 일본어교실, 서예교실

일반: 리본공예 기초반

어린이: 창의력 쑥쑥 미술교실, 어린이 영어회화



리본공예

산청

도서관 주간 행사

어린이와 함께하는 지리산 생태체험학습, 동화를 소재로 하는 인형극 공연, 과월호 잡지 무료배포, 그림책 함께 읽기, 도서전시

기타 행사

매월 어린이 독서퀴즈대회, 이달의 독서왕 선발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서예교실, 외어공예, 내 아이를 위한 독서코칭

어린이: 어린이사군자, 읽고 생각하고 글쓰는 독서교실

남해 화전

도서관 주간 행사

'해님달님' 인형극공연, 과월호 잡지 배부, 초등학생 독서퍼즐, 연체자 구제

기타 행사

보물섬남해독서학교, 영·유아 책임어주기

마산

도서관 주간 행사

'만희네 집', 원화전시, 청소년의 이유있는 반항 「가솔일기의 김혜정 작가 초청강연, 미술공연과 인형극의 만남, 무인대출의 최강자를 찾아라, 행복한 아트 체험세계(넌긴 아트, 점핑 클레이), Smart한 도서관에 대한 나의 생각, 이월 때 이런 책주제에 맞는 책 찾기가 옴오, (세계 책의 날 기념)장미꽃 두 손에

기타 행사

(세계 책의 날 기념)장미꽃 두 손에, 2011년 상반기 일일현장학습 운영, 함께 읽어요! 가족독서마라톤(2인 이상의 가족), 도전 책벌레-한 줄 감상글쓰기(초등학생)

상반기 문화강좌

실버: 실버댄스, 실버영어팝송교실

일반: 책 속의 독서치료, 역사 논술지도, 동화구연 자격증 준비반, 책과 시조 익히기, 책과 재테크, 찾아가는 동화랑 한글이랑, 목향으로 만나는 문인화교실, 영어동화, 토익 스피킹교실, 일본 노래교실, JPT 450교실, 유화교실, 패션핸드페인팅 자격증반, 서각

청소년: 찾아가는 내가 독서왕, 집중력 쑥쑥 속독

어린이: 영어나라 동요나라, 지능로봇과학교실, 역사속으로 고고, 나도 아인슈타인, 생각이 자라는 NIE

유아: ABC 엄마와 동화책읽기, 영어나라 동요나라, 울룩불룩 종이접기

삼천포

도서관 주간 행사

'Dream High(꿈과 희망을 주제로 한 도서목록) 배부 및 비치, 독서퍼즐(청소년 및 성인), 독서퀴즈(어린이), '뫼나도 내 책' 북 아트 체험행사, '내 이름은 북트리(Book tree), 책 속의 보물을 찾아라, 리플렛 제작, 작가 초청강연회, 내가 독서왕'

기타 행사

영화상영, 어린이 독서퀴즈 운영, 테마 독서 운동(모토존 설치 및 체험활동), 주부독서 토론회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내 아이를 위한 동화구연

어린이: 생각이 자라는 동화 그림, 영어스토리텔링

가족: 가족과 함께 신나는 주말 만들기!

양산

도서관 주간 행사

기증도서 및 과월호 잡지 판매전, 나무·숲 도서전, 작가초청강연회, 인형극공연, 책사랑 독서릴레이

기타 행사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2011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독서씨앗 공공공(유아들의 수준별 추천도서 제공), 이달의 작가&작품전시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서예교실, 원어민 생활영어, 책으로 마음열기, 한자급수, 연필대상, 사군자교실, 문예창작(수필쓰기)

어린이: 책과 그림으로 만나는 나, 독서앨범만들기, 메모판 만들기, 다문화체험나들이, 공기밥 로봇팔 만들기

제47회 도서관 주간 표어

내 영혼의 러브마크, 도서관

(우수작) 사랑해요 도서관,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 꿈꾸는 미래와의 소셜네트워크, 도서관

영양
시
아
상

도서관 주간 행사

‘떡자루, 돈자루, 똥자루’ 인형극 공연, 특강「은가족 독서코칭, 미술 사이언스 매직」, 타일위에 독후화 그리기, 책 속 보물찾기, 어디 어디 숨었나? (도서관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사진전시회), 점자도서 및 오디오 북 체험전, 독서치료 전시회, 마음을 나누는 독서치료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생활속의 펠트공예
어린이: 아인슈타인을 꿈꾸는 과학실험
과 함께하는 미술활동, 센스있는 영어독해, 영어에 날개를 다는 초등영어단, 동화나라 신나는 놀이터
유아: 재미풍풍 자신감쑥쑥 동화구연, 나도피카소



아이슈타인을 꿈꾸는 과학실험

의
령

도서관 주간 행사

책에서 만난 그림 친구(독후감상화 모집), 독서특강, 숨은생각찾기(독서퀴즈), 과월호에 새 생명을 (전년도 정기간행물 배부), 도서관은 보물섬(기념 품배부), 달콤쌔름한 봄책(추천도서)

5월 가정의 달 행사

가족인형극, 나를 있게 한 나의 가족

기타 행사

신축도서관 개관 기념 어린이 인형극(7월)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우리 아이가 보이는 그림책, 냅킨아트
어린이: 논리력 생각프레이밍, 요리조리 독서활동
유아: 동화 속 쿠키클레이



요리조리 독서활동

진
동

도서관 주간 행사

독서특강, 달콤쌔름한 봄책, 친구들이! 이 책 어때?, 느낌이 있는 동화나라(독후감상화모집), 정보 업그레йд하세요!

5월 가정의 달 행사

가족그림책 전시, 나를 있게 한 나의 가족

기타 행사

어린이 인형극 공연, 진동시내마(영화상영)

상반기 문화강좌

실버: 행복한 한글교실
일반: 동화구연 자격증 도전반, 자녀의 글쓰기 지도요령 노하우 공략, 칠보공예, MBTI 성격검사
어린이: 생각이 쑥쑥 독서논술
유아: 영어랑 놀자, EQ동화나라



이야기가 있는 역사 논술

진
양

도서관 주간 행사

사랑의 책 나눔, 상황별 그림책 전시, 각 자료실별 독서퀴즈, 외우! 도서관, 여영수 강사의 특별강좌 '엄마를 위한 그림책'으로 만난 인생이야기, 계층별 권장도서목록 배부, 고창 선문사로 떠나는 글사랑 (주부) 독서회 봄 문학 기행

5월 가정의 달 행사

원화전시, 인형극 공연, 가족영화목록 배부, 청소년을 위한 테마도서 전시

기타 행사

책이랑 놀아요(어린이를 위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우리 아이 독서로 생각 열기, 서예 교실, 예쁜글씨 POP, 사군자 교실
어린이: 신나고 재미있는 책놀이, 독서와 함께 생각 열기
토요휴업일: 이야기가 있는 역사 논술



인형극공연

진
영

도서관 주간 행사

미술과 함께하는 ‘떡자루 돈자루 똥자루’ 인형극 공연, 그림책 「고양이」 원화전시, 책 베품시장, 나도 독서회월중 있다(4월에 가입한 신규회원에게 2010년 김해의 책 1권씩 증정), 책 속 행운권을 찾아라, 봄내을 따라 향기 나는 책추천도서목록 배부

5월 가정의 달 행사

엄마와 함께하는 책 놀이 활동, 사랑 선물 포장반, 엄마 아빠 사랑해요~(종이카네이션 만들기), 동화 작가가 풀어내는 자녀독서지도, 역사문화기행, 어린이날 기념품 증정

기타 행사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 도서관 체험학습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웃으면 복이 와요(웃음치료), 똑똑한 가정경제, 서예
어린이: 어린이 숲 체험 교실, 신나는 미술교실
토요휴업일: 보들보들 부직포 소품 만들기, 아이클레이, 천연비누 만들기, 아로마 향기 따라 향기나는 손관리, 내가 만든 종이꽃, 휴이랑 놀아요, 만들며 배우는 조선의 건국역사/조선의 위대한 과학인물, 신기한 과학실험

진
주
동
동
어
린
이

도서관 주간 행사

인형극 공연, 원화전시회, 다독자 시상, 권장도서목록 배부

상반기 문화강좌

어린이: 나만의 책만들기, 노래로 배우는 중국어, 역사논술

진
주
비
봉
어
린
이

도서관 주간 행사

인형극 공연, 원화전시회, 다독자 시상, 권장도서목록 배부

상반기 문화강좌

어린이: 자신감 UP, 책읽기, 어린이 예쁜손글씨 POP배우기

진
주
서
부

도서관 주간 행사

인형극 공연, 원화전시회, 다독자 시상, 권장도서 목록 배부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내 아이를 위한 자기주도학습, 행복을 더 해주는 부모되기(대상관계 부모 훈련)



행복을 더해주는 부모되기

진
주
연
인
암

도서관 주간 행사

인형극 공연, 원화전시회, 다독자 시상, 권장도서목록 배부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생활 속 풍수 인테리어, 예쁜손글씨 POP초급

진
주
어
린
이
전
문

도서관 주간 행사

인형극 공연, 원화전시회, 다독자 시상, 권장도서목록 배부

상반기 문화강좌

어린이: 영어스토리텔링, 과학교실, 노래로 배우는 중국어

진
해
기
적

도서관 주간 행사

우리도서관 동시작가(동시전시회), 나도 동시 작가(동시쓰기 대회), 도서관매진, 봄을 여는 음악회

기타 행사

진해 기적의도서관 장터(벼룩시장, 6월)



벼룩시장

동
부

도서관 주간 행사

‘동’ 관련 그림책전시, 권장도서목록 배부

기타 행사

수요동화여행, 독서회 운영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책읽기를 통한 자아성장(문학테라피), 부모가 가르친다(내 아이 독서법), 내 아이를 위한 북아트(기초&심화)

어린이: 선생님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기초탄탄 글쓰기교실, 초등 책이랑 조형미술, 초등 클레이교실
유아: 클레이교실, 책이랑 조형미술, 유아 동화구연, 꾸러기 동화구연



수요동화여행

진
해

도서관 주간 행사

권장도서목록 배부, ‘도서관은 □□다. 왜?’

기타 행사

수요동화여행, 쿠키클레이 특강(유아/초등/성인), 독서회 운영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똑똑똑똑 북아트, 부모를 위한 신문활용교육
어린이: 책속 그림세상, 골판지와 그림책, 독서와 글쓰기, 신나는 과학나라, 어린이 사서4기, NE로 사회역사 따라잡기
유아: 오감발달 클레이, 동화구연, 책 속 그림세상



오감발달 클레이

창
영

도서관 주간 행사

함께 떠나자 전자책 엮어꾸미기 응모전, 도전 독서퀴즈, 학부모를 위한 신문활용교육, 모범 독서인 시상, 권장도서목록 배부

기타 행사

동화 배달부(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 동화구연 들려주기), 학습동아리(파랑새) 운영, 자원봉사자(상록수) 운영,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저소득층 어린이와 독서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서예, 수목화, 중국어 기초, 영어 기초, 동화구연
어린이: 신문활용교육

토요휴업일: 동화책이랑 놀자, 나만의 독서달력 만들기, 날아라~움직이는 새 만들기, 폼아트로 우리가족 액자 만들기, 창의력 향상을 위한 만들기교실, 개성 만점 맛있는 쿠키 만들기



수목화

창원

도서관 주간 행사

도서관을 찾아라, 매일매일 즐거운 도서관, 내가 만난 창원도서관 함께 나누기, 창원도서관은 나에게 □이다, 도서관 속 북카페, 도서관 패밀리가 떴다, 국·내외 아동문학상 수상작품 전시, 책 속 '토끼를 찾아라, '마음으로 느끼는 책' 전시, 도서관으로 성공한 사람들'인물전시



5월 가정의 달 행사

「용돈주세요」 원화전시, 가족과 함께하는 예코가 방만들기 책 읽어주기, 가족의 얘기를 담은 도서관지 도서관과 함께 한 책 읽기, 인형극 공연, 가족영화상영, 도서관과 함께 세계로(세계여러나라의 문화, 지리, 역사 등에 대해 소개하고 관련도서를 전시)

기타 행사

인형극 독서퀴즈왕&청소녀독서퀴즈, 2010 대출베스트북 전시, 유아 그림꾸밈벽, 자동대출/반납이벤트, 후지모토 타쿠미 작품사건 전시, 책보따리 대출(영·유아도서), 가족독서마라톤, 원전정북'책벌레 프로젝트', 이달에 만나는 책 이야기, 도서관 나들이&청소년 현장학습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시청각, 내 아이를 위한 역사책 읽기, 자녀독서지도, 신문활용 교육과 논술, 그림책 깊이읽기, (초중등)자녀학습클리닉, (유아)독서놀이지도, 한글서예(초급), 한자서예(초급), 생활도자기, 수채화, 유화(초급), 영어회화(초급), 일본어회화(초급), 중국어교실(초급), 생활역학, 미술치료, 들꽃배우기, 다이어트 요가, 컴퓨터 기초와 문서작성, (아간)엑셀실무 기초, (아간)재테크 전략, (아간)넷생&수채화, (아간)한자풀이 고전강독, 토요일업일: 북(book)작북(book)책놀이, 리플 만들기, 유아 동화구연 액션, 유아 창의미술, 동화로 키우는 위풍당당 리더십, 체험 역사교실, 음악즐림기 건강한 부모교육

유아 그림꾸밈벽

통영

도서관 주간 행사

책주인공(캐릭터)과 사진을 영어스토리텔링, 추천도서 속 삼풍권(대출정지 풀어주기, 대출권수 늘려주기 등), 도서관 기념만들기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해설이 갖는 영화&음악여행, 예쁜손글씨 POP, 중국어교실, 나는야 알파말 어린이: 영화 깊이 들여다보기, 유아: 북스타트 후속프로그램, 영어스토리텔링

통영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디지털카메라, 유아: 미술놀이

하남

도서관 주간 행사

「떡지루 돈지루 똥지루」 인형극 공연, 내친구 도서관, '도서관주간' 5행사 짓기

5월 가정의 달 행사

개관기념 '도서관 생일떡 드세요'

기타 행사

경남을 빛낸 위인 도서관(초등학생과 위인관련 독후활동), (세계 책의 날 기념)책 전달하기

상반기 문화강좌

실버: 아간에 찾아가는 건강교실(요가) 일반: 유아를 위한 부모교육, 고등학생: 행복을 찾아가는 책 읽기, 어린이: 재미있는 일기쓰기



인형극공연

창원

기타 행사

영화상영

창원

기타 행사

동화구연 '호호선생님이랑 놀아요'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홀루랄라 신나는 동화구연, 성인 역사교실, 어린이 영어지도법, 어린이: 만들어 체험하는 창의역사교실, 두근두근 신나는 미술시간, NIE로 풀어가는 인물이야기, 토요일업일: 두뇌개발 한자교실

하동

도서관 주간 행사

「송내관의 공평 기행」 송용진 작가특강, 독서퍼즐, 전년도 잡지판매전, 도서 나눔전, 영화상영, 이용자 간담회, 다독이용자 시상, 권장도서목록 배부, 나에게 도서관이란?, 독서마라톤대회

5월 가정의 달 행사

마술 공연, 독자체험학습, 사랑과 감사의 고백 나무, 책+사랑, 독자 퀴즈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서각, 중국어, 달려라 기타, 청소년: 중국어, 달려라 기타, 어린이: 꾸러기 친구들(동화구연)



독서퍼즐

창원

도서관 주간 행사

인형극 상영, 한국어/영어구연동화, 신나는 애니메이션 상영(어린이자료실), 우수영화상영, 우수도서 전시회, 가족체험행사 '맛있는 도서관, 우리 가족 컵케익 만들기', '내가 퀴즈왕' 독서퍼즐,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 '도서관 책 기증 운동'



기타 행사

북스타트 운영, 주부: 어린이독서회, '호호선생님 동화랑 놀아요' 구연동화

호호선생님 동화랑 놀아요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자녀심리학교, 한글·한문 서예교실, 내 아이에게 꼭 맞는 독서논술지도법, 중국어회화기초, 영어회화기초, 어린이: 두근두근 신나는 미술시간, 과학실험교실, 만들어 체험하는 한국지리, 파워리더십 스피치

함안

도서관 주간 행사

책나눔 한마당, 「집안치우기」 원화전시, 나도 동화 속 주인공(포토존 설치), Quiz! Quiz! 속으로, 명대사를 찾아라(책 속 명대사 및 독서평을 작성), 책 속 쿠폰을 찾아라, 모범 이용자 표창, 영화상영, 책읽는 함안인민로 배부

5월 가정의 달 행사

찾아가는 특별 강좌 '행복한 부자로 안내하는 우리집 재무설계', 동화 속 주인공 쿠키로 만들어요

기타 행사

'2011년 학부모 대학' 운영, 우수학습동아리 '플로리스트 교실' 운영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책으로 다가가는 부모코칭, 어린이: 미리 만나는 교과서 동화, 꿈이 자라는 미술동화, 동화로 키우는 위풍당당 리더십



책나눔 한마당

창원

도서관 주간 행사

어린이인형극 공연, 독서퀴즈, 팝업북 전시회, 북세미나, 우수회원선정



기타 행사

북스타트 및 후속프로그램운영, '호호선생님 동화랑 놀아요' 구연동화

조형미술놀이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논술, 자녀독서지도법, '엄마표' 영어 스토리텔링, 마음을 읽는 미술심리치료, 천연비누 & 화장품 만들기, 좋은 부모되기(자녀심리와 학습클리닉), 인문학·철학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사 NIE, 생활속의 풍수지리, 서예한글, 서예한문, (아간)영어회화기초, (아간)예쁜글씨POP, 어린이: 역사 NIE(삼국의 건국~가야), 세계사 NIE(고대 그리스와 로마), 창의력 독서영재교실, 이야기로 배우는 역사논술(원사~후삼국), 발표력을 키워주는 스피치교실, 어린이 서예교실, 신나는 영어동화교실, 재미있는 영어일기교실, 토요일업일: 조형미술놀이, 창의역사교실, 중학논술

함양

도서관 주간 행사

인문학 도서를 서평과 함께 전시, 가족과 함께하는 책이름사냥(신문·잡지에서 글자를 오려 책이름만들기), 어린이독서퀴즈대회, 계층별 권장도서 목록 게시, 우수영화상영

기타 행사

가족독서골든벨 개최, 도서관 활용 우수이용자 시상, '2011 함양도서관의 책' 선정, 북스타트 '아가랑 엄마랑' 책 읽어주기, 느티나무독서회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시청각교실, 수채화교실, 실용공예교실, 어린이: 독서교실, 창의력 쑥쑥



느티나무독서회

창원

도서관 주간 행사

박완서작가 도서전시 및 목록배부, 「꼬마 니콜라」 원화전시, 영화세상으로의 초대, BOOK MARKET(정기간행물과 도서 판매전), E-book 독서퀴즈

기타 행사

동영 습지이야기(현장체험학습), 찾아가는 특별강좌 '올바른 책 읽기로 시작하는 자기주도학습코칭'

상반기 문화강좌

일반: 내 아이 독서지도, 예쁜손글씨 POP

합천

도서관 주간 행사

도서 판매전(기증 도서와 작년 정기간행물), 초등학생 독서골든벨, 마술 배우기

기타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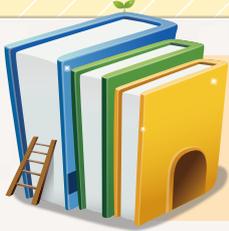
행복 실버 미술교실(합천 원목피해 복지회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미술창작 활동)

상반기 문화강좌

실버: 어르신 독서 아카데미, 일반: 북아트, 예쁜글씨 POP, 참된 학부모 교실, 어린이: 생각을 키우는 글쓰기 NIE, 유아: 엄마와 함께하는 동화구연



독서골든벨



우리지역 도서관에서는 지역적 특색과 연계한 자료코너와 전문화 등 보다 차별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 차원 높은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역 도서관에는 어떤 특색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거제도서관

특화도서 공모전

- 전쟁특화도서관으로 독서를 통해 전쟁과 평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6. 2~6. 30까지 전쟁문학 도서구입 및 전쟁문학 독서후기 공모전 실시

거창도서관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와 MOU체결

-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와 양해각서(MOU) 체결 및 도서관별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

8962부대 6대대와 자매결연

- 장거창 관내 8962부대 6대대와 자매결연으로 평생교육 및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와 MOU체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북스타트 보물상자 운영

- '북스타트', '북스타트 플러스' 사업에 이어 2010년~2011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운영. 멋진 보물상자 속에 유아용 도서 2권과 퍼즐 가이드북 등을 담아 이용자들에게 배부



북스타트 보물상자

경남점자정보도서관

시각장애인 역사문화탐방 'History Holic'

- 연 5회 실시하며, 경남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

시각장애인 컴퓨터 A/S 사업

- 경남점자정보도서관의 전문화된 인력이 시각장애인 전용 컴퓨터의 S/W, H/W 업그레이드 및 교체 등 무상수리를 통해 경남에서도 즉시 서비스 가능



History Holic -참다래잼 만들기

김해도서관

2011년 독서아카데미 운영

- 학부모의 독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독서전문가 및 작가 초청 독서 특강

진학정보자료실 운영

-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필요한 다양한 진학정보 자료 및 학생중심 자료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해설사와 함께하는 '가야사 이야기'

- 김해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청소년 대상 독서프로그램

1도서관 1특화 프로그램 '소생 가야문화 탐방투어' 운영

- 소외된 면단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야문화 유적지 탐방투어

2011년도 소외계층 및 다문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독서학급코칭, 찾아가는 장애인 요가,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자녀 독서코칭, 다문화교육 관계자 연수, 찾아가는 어르신 독서미술회



찾아가는 장애인 요가

김해장유도서관

은빛독서회

- 한글 문해 교육을 마친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회 마련

세계시민학교

- 초등 5·6학년년을 대상으로 세계 여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토론 및 글쓰기

방과 후 도서관 학교

- 초등 3·4학년과 함께 동시 및 고대시조 읽고 토론하기

청소년 재능나눔미단

- 청소년들이 유아들에게 영어책 읽기, 종이접기 및 동요 연주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활용



청소년 재능나눔미단

김해칠암도서관

청소년 특화자료 코너 운영

- 사회자연과학자료실에 중·고등학생의 교과과정 관련도서 및 심화도서, 우수도서 비치

남지도서관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

- 친환경 공예 체험하기(가족공예), 폐 재료를 활용한 소품 리폼하기, 재활용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남해화전도서관

보물섬남해독서학교

- 4월~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와 글쓰기 독서토론 등의 활동

영·유아 책임어주기 2기

- 북스타트 후속프로그램으로 4. 21~6. 16까지 매주 목요일 자원봉사자의 진행으로 이루어짐

마산도서관

시각장애인대상 프로그램 '노래로 소통하자'

-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디오 북을 듣고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발성법과 감정이입 방법 등 노래 부르며 배우는 강좌 운영

다문화 자료 코너 운영

- 중국, 일본 외 3개국 언어의 어린이동화책과 일반자료 700여권을 비치. 다문화가정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자료 활용



큰글자도서

큰글자 자료 코너 운영

- 저시력자 및 노인들을 위한 큰글자도서 120여권 비치

상처받은 마음을 위한 도서 코너 운영

- 상황별 독서치료도서 비치

마산회원도서관

찾아가는 북스타트 운영

- 생후 0~24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북스타트 안내 및 책꾸러미 전달

밀양도서관

밀양연극협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연극 따라잡기

- 삼랑진고등학교와 MOU체결하여 운영. 연극이론 및 실기학습, 밀양연극촌 방문체험, 경남 청소년연극제, 밀양공연예술축제 참여

2011. 밀양 독서교육 '노블레스 오블리주 독서산책' 개최

- 기관·학교장 등 지도층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책을 읽고 작가 및 작품을 연구·토론. 밀양지역을 4권역(밀양시내 2권역, 삼랑진읍, 하남읍)으로 나누어 분기별 순회 실시



삼랑진고등학교 MOU체결

도서관과 함께 책임기

-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에게 책 읽어주기, 동화구연, 손유희, 독서치료, 독서체험의 활동 운영

지역 기관 단체와의 교류 협력(MOU) 체결

- 기관·단체와의 MOU체결(한국수자력원자력(주)·삼랑진발전본부)로 상호협력체제 마련. 소외된 불우시설과 1기관 자매결연 체결(낮은울타리)로 지역사회와 사랑을 나누는 나눔 운동 전개. 학교 친구하기 자매결연 체결(삼랑진초등·고등학교)로 학교독서교육 지원

사천도서관

초등독서치료지원사업 '선생님, 마음이 아파요'

-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독서치료 체험프로그램 4회 운영

책이 '책아, 우리아이 마음을 열어줘'

- 매일 어린이 상황별 독서치료 도서전시 및 리플렛 제공



'책아, 우리아이 마음을 열어줘'

산청도서관

북스타트

- 영·유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여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책꾸러미를 선물하고 독서화원으로 가입, 도서 추천 및 읽어주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8주과정으로 다양한 책놀이 프로그램('아기랑 엄마랑 책놀이교실') 진행



북스타트-'즐겁게 춤을 추다가'

삼천포도서관

'바다가 낳은 시인, 박재삼을 찾아' 특화프로그램 운영

- 박재삼 문학관과 연계하여 3.26~6.11까지 매주 토요일 청소년과 함께 박재삼 시인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시 낭송을 통해 작품 감성, 수로식별 '음악이 흐르는 시 낭송회' 개최

양산도서관

2011년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 한 책 읽기 독서릴레이로 시민참여 공개토론회 개최, 작가 및 독서전문가 초청 강연회 실시, '한 책 읽고, 한 줄 감상' 코너 운영(홈페이지)

Let's Read(독서포드폴리오)

-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독서플랜을 유도하기 위해 교과 및 교양 중심의 추천도서를 선정, 독서록을 배부하여 독후기록(독서포드폴리오), 학년말 다독자 및 독후기록 우수자 시상.
- 양산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사업, 창원도서관 주최 경남독서한마당 연계사업으로 추진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웅상도서관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

- 아이들과 어머님들이 그린 그림을 통해 마음을 진단하고 상담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

의령도서관

북스타트 사업

- 의령군 거주 생후 0~24개월 영아에게 책 꾸러미 배부

진동도서관

실버건강요가

-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색에 맞춘 건강프로그램으로 매주 수, 금요일 운영



실버건강요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 매주 목요일 진전어린이집 원생과 함께 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동화구연, 책과 함께 신체 활동 놀이, 책 속 체험활동, 찰흙으로 책 속 주인공 만들기, 행복한 책읽기 등)

진양도서관

학부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부모대학 운영

- 초등학교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독서교육, 진로교육, 양성평등교육

다문화관련 자료 코너 운영

- 어린이자료실 및 종합자료실에서 다문화관련 자료 코너를 설치하여 운영

진영도서관

도서관 1특화프로그램(어학관련) 운영

- '영어 발표력 교실, 재미있는 동시교실'을 관내 지역아동센터(2기관)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진해기적의도서관

찾아가는 '어깨동무 책동무'

- 진해제철초등학교와 연계하여 독서에 흥미를 갖게 하고 읽기부진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삼성공작장재단 후원, 책임있는사회문화재단과 진해기적의도서관이 주최·주관)



어깨동무 책동무

동부도서관

'동화속으로 풍덩' 프로그램 운영

- 자원봉사자가 어린이에게 그림책 읽어주기

이달의 독서왕

- 도서관에서 발급해주는 독서통장을 활용하여 매달 어린이 다독자를 선정하여 상장 및 부상 수여, 사진전시

책나무왕

- 책을 읽고 느낀점을 주제별 색깔로 분류된 책나무임에 적어 어린이실 나무에 매달아 책나무를 키워가는 프로그램으로 6월 중순경에 시상하여 상장 및 부상, 책나무왕 배지 수여



책나무왕

진해도서관

'동화속으로 풍덩' 프로그램 운영

-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옛적 이야기', '책 읽어주는 도서관', '영어스토리텔링', '연접언니가 들려주는 영어스토리텔링' 등의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자가 진행

이달의 독서왕

- 도서관에서 발급해주는 독서통장을 활용하여 매달 어린이 다독자를 선정하여 상장 및 부상 수여, 사진전시

책나무왕

- 책을 읽고 느낀점을 주제별 색깔로 분류된 책나무임에 적어 어린이실 나무에 매달아 책나무를 키워가는 프로그램으로 6월 중순경에 시상하여 상장 및 부상, 책나무왕 배지 수여



동화속으로 풍덩

창녕도서관

창녕군 외국어 특구와 연계한 외국어 콘텐츠 자료활용 사업

- 외국어 자료(어린이 영어그림책 600여권, 외국어 관련 전자책 및 온라인 학습프로그램 178종), 외국어 강좌(생활영어 회화, 왕수준 중국어), 외국어자료 활용 이벤트(딩동댕 영어게임) 운영

창원도서관

책 보따리 운영

- 영·유아 도서를 주제별 7권씩 담아 '주제별 책보따리'를 만들어 대출

창원도서관 트위터 팔로워(Follower) 개설

- 도서관의 행사, 신착정보 등 생생한 도서관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changwonlib) 지역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서로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

경남독서한마당

- 독서를 통한 경남의 책 읽는 문화 확산을 도모, 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 제7회를 맞이함

교과관련 도서코너 운영

- 초·중·고등학교 학년별 교과관련 도서코너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에 도움

창원상남도서관

어린이 영어자료 특화도서관

- 7,100여권 어린이 영어도서를 비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

창원의창도서관

장애인을 위한 도서대출 무료택배서비스 실시

- 올해 3월부터 실시

통영도서관

범도민 독서운동 '통영시민 冊愛 빠지다- 열두 달 테마 북'

- 매월 독서테마와 테마북을 선정, 리뷰를 배포하고 도서를 전시
- 통영도서관, 통영시립도서관, 통영교육지원청 협력 사업

청소년 독서운동 '1318 청소년 독서마일리지'

통영시립도서관

범도민 독서운동 '통영시민 冊愛 빠지다- 열두 달 테마 북'

- 매월 독서테마와 테마북을 선정, 리뷰를 배포하고 도서를 전시
- 통영도서관, 통영시립도서관, 통영교육지원청 협력 사업

하남도서관

'내 친구 도서관!' 독서쿠폰 운영

-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도서대출 및 독서체험행사에 참가 시 쿠폰에 스티커를 붙이고, 쿠폰이 완성되면 선물 증정



내 친구 도서관!

하동도서관

녹차도서관

- 녹차체험학습, 녹차퀴즈, 다도체험교실, 다기 만들기, 녹차화장품만들기, 녹차관련 강행물 구독, 녹차의 향기 코너 운영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책읽기

- 도서관 유아방 및 하동사랑지역아동센터에서 재미있는 그림책을 읽어주고 독후활동



다도체험교실

함안도서관

다문화 여성을 위한 동화이야기

-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국고지원 사업으로 결혼이주 여성에게 다양한 동화구연 기법 및 책 읽기를 통한 독후체험활동

장애인을 위한 '꽃과 함께 푸른 꿈 가꾸기'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과 함께 꽃과 식물을 통한 원예창작 및 원예치료활동

나란나란 우리역사 도란도란 아라가야

-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가야~조선시대 역사와 관련한 글쓰기 및 체험학습



다문화 여성을 위한 동화이야기

함양도서관

독후마일리지제 운영

- 11월까지 대출한 도서의 독후감상문을 작성하면 1편당 5점 부여, 12월에 마일리지 가 많이 쌓인 1등~3등까지 상품증정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 매주 화요일 열린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책 읽기 및 다양한 독후활동

1도서관 1특화사업

- 약초 화단을 조성, 약초전문가를 초빙하여강연회 개최

함천도서관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 및 생태체험

- 도서관 1특화사업으로 주말을 맞은 가족이용자들과 다양한 문화재 및 자연생태를 체험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 및 생태체험

경남 공공도서관 소식

축하합니다~



[거창도서관] [삼천포도서관] [박인숙 관장]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도서관사업 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한국도서관상을 매년 시상한다. 지난 2월 28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한국도서관협회 총회에서 제43회 한국도서관상(단체 20관, 개인 12명)을 시상하였다.

경남 공공도서관은 단체부문 한국도서관상에 '거창도서관(관장 강연희)', '삼천포도서관(관장 김희환)'이 수상하였고, 개인부문에는 '박인숙관장(통영도서관)'이 수상하였다.

홈페이지를 새단장하는 도서관

• 거제도서관

웹컨텐츠 시대를 맞이하여 거제 시민에게 적극적인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 마산도서관

장애인, 고령자들이 홈페이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조정기능, 음성기능 등을 개선하고 웹 표준을 적용해 익스플로러 외에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

• 산청도서관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홈페이지 구축, 상반기에 RFID시스템 구축예정

• 진영도서관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홈페이지를 쉽게 이용하기 위해 웹 표준을 적용, 익스플로러 외에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

• 통영도서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접근성을 준수한 도서관 홈페이지 신설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모바일 홈페이지]

새이름으로 불러주세요~

- 진해시립동부도서관 ⇒ 동부도서관
- 진해시립중앙도서관 ⇒ 진해도서관
- 창원시립도서관 ⇒ 창원의회창도서관
- 창원시립성주도서관 ⇒ 창원성산도서관
- 통영농어촌공공도서관 ⇒ 통영산양도서관
- 육지농어촌공공도서관 ⇒ 통영육지도서관

알고 계시나요?

경남 공공도서관이 모두 나의 서재!



책바다(국가상호대차서비스)
<http://nl.go.kr/nill>

내가 원하는 도서가 근처 경남 동부권 도서관에는 없고 멀리 서부권 공공도서관에 있다면? '책바다'를 활용하면 원하는 도서를 쉽게 내 손안에 넣을 수 있다.

책바다(국가상호대차서비스)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공동 활용서비스이다. 즉 자주 가는 도서관에 찾고자 하는 책이 없을 경우, 다른 지역 도서관에 있는 책을 직접 빌리러가지 않고 인터넷 신청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424개의 공공도서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도서 등의 인쇄 자료와 장애인용 대체자료(점자·촉각·녹음·큰활자도서·수화·자막영상물 등)가 신청가능하다.

경남의 33개 공공도서관에서도 참여하고 있으니 근처 공공도서관에 바로 문의해보자~

경남의 모든 사서가 나의 지식 멘토!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http://www.nl.go.kr/ask>

가까운 도서관은 어디 위치해 있나요?, 부탄이라는 나라에 가려면 비행기로 어떻게 이동해야하나요?, 우리아이가 초등 3학년인데 책읽기를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철학자들의 사랑을 다룬 책은 없나요? 언론자유수호선언에 관한 논문이 있을까요? 등 궁금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사서가 말해준다.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는 생활에서 궁금한 지식이나 학술정보에 대하여 사서가 도서관 소장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참고 서비스로, 전국 342개의 공공도서관의 사서가 참여하고 있다. 경남의 30개 공공도서관 사서도 여러분의 질문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 무엇이든 궁금하면 사서에게 물어보자~

또한 사서들이 권하는 추천도서, 주요기관에서 선정된 추천도서에 대한 소개, 독서 및 도서와 관련된 유용한 사이트도 함께 소개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자~

도서관계 소식

국립중앙도서관, 이란국립도서관에 한국자료실 문열어



국립중앙도서관은 2010년 12월 7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이란국립도서관에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을 개설하였다. 인도네시아국립도서관에 이어 열한 번째로 개설하는 이란국립도서관 한국자료실은 약 30평방미터의 면적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원한 한국관련 도서 3,500여권 및 DVD 300여점의 자료와 PC등을 갖추고 있다. 한국드라마와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다양한 수준과 내용을 다룬 한국어 교재가 많이 구비되어 있다.

경기도, '사이버 다문화도서관' 전국 첫 개설

경기도는 올해 1월 17일 전국 최초로 '사이버 다문화도서관(global.library.kr)'을 개설하고 도내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3만 여권의 다국어 도서 등의 정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사이버도서관은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등 10개 국어를 지원하며 이용자들은 다국어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을 확인, 자료 검색검색과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문화특화도서관 안내, 도서관교육콘텐츠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다국어 도서의 언어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서의 표지를 스캔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일본 국제어린이도서관 '권윤덕 작가 초청 강연회' 열어



올해 일본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는 사단법인 일본 팬클럽과 공동으로 '지금 세계 어린이 책은?'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어린이 책 관련 이벤트를 열고 있다. 1월 22일 첫 행사로 한국의 그림책 『만희네 집』, 『일과 도구』, 『엄마 난 이 옷이 좋아요』, 『꽃 할머니』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권윤덕 작가와 일본의 대학에서 한국 아동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오오타케씨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가졌다.

2011년 IBBY 장애어린이를 위한 좋은 책, 한국 그림책 3권 선정

국제아동도서협의회(IBBY, International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는 아동도서문화 발전을 위한 전 세계인들의 국제적인 조직망을 가진 비영리 단체로, 장애어린이들이 읽으면 좋은 책에 대해 알려주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어린이를 위한 좋은 책'을 선정하고 있다. 2011년에는 한국 그림책 3권이 선정되었다.

1. 점이 모여 모여/엄정순 글/창비/2008
: 장애 아동을 위해 특별하게 제작된 책으로, 수화 촉감 등 다른 소통방식을 포함하는 책
2. 관찰아/최숙희 글·그림/웅진주니어/2005
: 읽기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 청소년을 위한 책으로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책
3. 무지개/김진기 글, 김재홍 그림/푸른책들/2007
: 장애 아동을 묘사한 책

미국 아마존, 전자책 판매량이 종이책 판매량을 앞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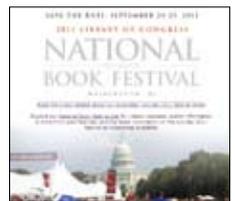
미국 아마존(Amazon.com)은 지난 1월 27일 2010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4분기 전자책 및 종이책 판매실적을 발표했다. 아마존의 킨들(Kindle) 전자책 판매가 종이책 판매부수를 넘어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아마존에 따르면 종이책이 100권 팔릴 동안 전자책은 115권이 팔렸다고 한다. 무료

전자책은 통계에서 제외되었으며, 포함될 경우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1995년 설립된 아마존이 유명해진 것은 종이책 때문이었다. 일반 대형서점에서 구하기 힘든 책도 아마존에서는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입소문을 탔고, 세계 최대의 온라인 서점이라는 자리에 올랐다. 2007년 11월 처음으로 아마존 자체 전자책 리더기인 킨들을 발표하면서 전자책 사업에 매진했고 킨들은 전자책 시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2010 내셔널 북 페스티벌'에 15만명 참가

지난해 9월 미국의회도서관이 주최·후원하는 내셔널 북 페스티벌 행사(2010 National Book Festival)가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15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으며, 지난 10년간 백만 명 이상이 독서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Isabel Allende, Ken Follett, Michele Norris 등 70명 이상의 베스트셀러 작가, 시인, 삽화가 등이 참여해 연설을 했다. 또 역사전문가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책, 사진, 시청각 자료들을 오랜 기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됐다. 직접 참가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웹사이트에서 동영상으로 제공한다.(<http://www.loc.gov/bookfest>)



Save Our Libraries day! 도서관에서 하룻밤 보내기



도서관에서 하룻밤 보내기 (New Cross Library)

영국 런던 공공도서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0여관이 예산삭감으로 인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런던시의회 대변인은 "자치구들은 꼭 도서관을 폐관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최선의 도서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예산삭감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도서관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공공도서관 폐관을 막고자 'Save Our Libraris day'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캠페인이 벌어졌다. 서가의 책 모조리 대출하기, 도서관에서 하룻밤 보내기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들이 펼쳐졌으며 작가들과 음악가들의 참여 이벤트도 이어졌다. 캠페인의 참가자들은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캠페인의 진행상황을 알리고 더 많은 참가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비 내리는 동백길을 따라 길위의 인문학을 떠나다

거제시립옥포도서관 이용자_ 김은혜

우리 동네 새로 생긴 예쁜 도서관에 현수막이 걸렸다. “길 위의 인문학”을 떠난다. 호기심에 인터넷을 뒤졌더니 꽤나 호평속에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남편과 함께 등록을 하고 벌써 인터넷으로 사전 답사를 마친다. 그런데 전날부터 비가 오더니 출발시간이 다가와도 흐린 하늘은 그칠 줄을 모른다. 이 빗속에 누가 오나 했더니 하나둘씩 우의를 입고 우산을 쓰고 떠나는 즐거움만큼이나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많이들 참석을 한다. 뱃고동 소리를 따라 도착한 지심도 내 쉼터에서 이성보 선생님의 강연이 시작된다.

거제의 한자어는 클 ‘巨’와 구할 ‘濟’다. 크게 구한다고 했으니 그 대상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이지 싶다. 그래서일까. 거제 사람들은 거제가 나라를 세 번 구했다고들 이야기하곤 한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 첫째는 옥포대첩으로 나라를 구한 것이고, 둘째는 한국전쟁 당시 17만 포로와 10만 피난민을 구한 것이다. 외환위기 때 조선산업으로 국가경제를 떠받친 것이 그 셋째란다.

비 내리는 바다를 바라본다.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지심도는 운동 푸름 일색이며 얼핏 보면 푸름 한 빛인 것 같지만 조금 눈여겨보면 푸름에도 차이가 있다. 하늘과 풀과 나무가 바탕은 청이지만 색감의 농담과 다른 색소의 혼합 따라 천차만별이려만 우리는 그저 청과 녹으로 각자 짙고 옅음 정도로만 감지하고 있으니 인간의 인식이란 얼마나 하잘 것 없는지 알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감탄을 느끼며 나의 작음에 움츠리기도 한다.

소외된 인문학을 찾아 누가 오란 것도 아닌데 관심을 갖고 참여한 탐방자들과의 이번 프로그램은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다. 눈을 반짝거리며 선생님의 뒤를 졸졸 따라 다녔더니 흠길에 신발은 더러워졌지만 내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순수했다. 인문학은 나와는 거리가 먼 학문인줄 알았다. 인문학은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의 학문이고 삶이라 생각했는데 이번 탐방은 인문학에 대한 내 짧은 소견을 바꿔놓았다. 길을 걸으며 생각하고 듣고 말하는 시간 중에 생활 속 주변의 모든 것에 이미 인문학이구나 알게 되었다. 좋은 강연과 함께 생각 속에 돌맹이를 던지시며 존재감만으로 빛나던 이성보 선생님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서 진행하느라 고생하신 도서관 관계자 분들, 프로그램을 후원해준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일보 등 인문학적인 삶을 살아갈 기회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꿈을 먹고사는 이들을 위해...

거창도서관 단기근무자_ 강유민

전국적으로 구제역이라는 태풍이 몰아쳤다. 지금은 비록 잠잠해졌지만 지난 몇 달간 우리는 가축들의 주검, 농민들의 절규와 슬픈 눈망울들을 보았다. 그들에게 지금 꿈은 무엇일까? 축산업의 번창? 구제역의 종식? 아마도 지금의 그들에게 꿈은 없을지도 모른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으니...

누군가가 말했다. 인간은 꿈과 희망을 먹고사는 존재라고.. 내가 있는 이곳 거창도서관이란 작은 공간도 큰 꿈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이 가득한 곳이다. 맨 처음 이곳에 온 나는 전화 한통 받는 것조차 낯설었다. “가..감사합니다. 거..거창도서관입니다..” 어색한 톤과 써본적 없는 멘트는 상대방에게 친절함보다는 부담과 당황감을 주지 않았을까? 도서대출과 반납, 서가정리, 장서점검, 월간잡지와 책자스크랩... 각각의 업무적인 스트레스보다 처음해보는 업무자체의 낯설음은 마치 새로 산 신발처럼 나에게 얼마간의 적응할 시간을 요구하고 있었다. 점점 업무에 익숙해지고 차츰 일에도 여유가 생기면서부터는 이곳 도서관을 찾는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궁금해지고 그들이 과연 무슨 책을 읽는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왜 도서관을 오는지도 궁금해졌다.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꼬마군단과 입시준비로 고생하는 중고생들, 힘든 취업의 문턱을 넘으려 애쓰는 대학생들...이 모두가 우리도서관을 찾는 많은 부류중의 하나이지만, 그들에게서는 어떤 사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맑디맑은 꼬마들의 호기심 가득하던 눈빛은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듯하고 대학생이 되어 취업을 준비하면서부터는 자신감마저 잃어버린 듯하다. 무엇이 그들에게 어릴 적의 순수함, 동화 같은 눈망울을 잃게 했을까? 이미 우리는 그 해답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적자생존과 물질만능주의 사회풍토 속에서의 경쟁, 입시과열과 사교육을 조장하는 사회분위기, 교육제도의 개선 등 진부하고 그렸듯한 대답들은 이젠 식상하다. 오랫동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으니...

이런 점에서 도서관이란 곳은 그들의 피난처이자, 휴식처이자, 꿈을 이루는 공간인 듯하다. 지친 이들의 가슴을 보듬을 따뜻한 시가 있고, 꼬마들의 눈망울을 빛나게 할 훌륭한 위인들이 있다. 어둠을 밝혀주는 많은 지식이 있고, 나와 비슷한 꿈을 찾아가는 동지들도 있다. 나 이와 상관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그 누구의 꿈도, 그 어떤 이의 희망도 다 보듬어 줄 수 있는 큰 가슴을 가진 비록 규모는 작지만 우리 도서관은 꿈을 먹고사는 이들을 위한 그 어떤 곳보다 넓고 따스한 품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나만 갖고 있는 대단한 착각일까?^^

오늘을 살고있는 나의 꿈은 무엇일까? 나도 그들의 눈망울을 보며 새로운 꿈을 꾀본다.

밀양도서관의 독서교실 재미있었어요

- 밀양도서관 2011 겨울독서교실 참가 -

삼랑진중학교 1학년_ 이 예 지

이번에 새로 삼랑진으로 이사 온 밀양도서관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독서교실 캠프를 하게 되었다. 캠프에서는 신나는 책읽기, 도서관 탐험, 역사신문 만들기,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우리교장을 소개합니다, 내가 선정한 동화 속 Best Cut!, 나는 내가 좋아! 독서치료, 도전 독서 골든벨 등 여러 가지 독서활동을 했다. 다양한 활동이 많아서 그런지 재미있었다. 그 중에서 읽은 책으로 독서감상문을 쓰는 것이 제일 재미있었다. 내가 쓴 독후감을 소개한다.

민수에게...

(“시크릿 실천법”을 읽고)

안녕 민수야? 난 예지야

너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내가 지었어. 괜찮지? 난 이 책 시크릿 실천법을 읽고 많은 것을 깨달았어. 난 처음에는 자신감도 없고 재능도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 꿈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그런데 이 책은 읽으면서 달라졌어. 난 재능도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어. 그런데 노력을 안 한 것 같아. 난 충분히 노력만 하면 내 꿈 선생님이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김연아, 박지성 같은 사람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 민수 너도 그렇게 생각 하지 않니? 시크릿은 너한테 도움을 많이 줬지? 시크릿은 너무 좋은 사람 같아.

내가 네 이름을 왜 민수라고 지었는지 아니? 시크릿도 너한테 도움을 많이 줬지만 너도 너한테 도움을 많이 줬잖아. 민수라는 사람이 너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 그래서 지은 거야. 다음에도 시크릿 실천법 책에 나오길 바래.

안녕~

- 2011년 1월 12일 예지가 -



도서관은 나의 튼튼한 동아줄

삼천포도서관 자원봉사자_ 박보배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오누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튼튼한 동아줄을 타고 하늘위로 올라가고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타 그만 수수밭에 떨어지고 마는 이야기가 있다. 만약 오누이가 썩은 동아줄을 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의 이야기를 들려 줘 볼까 한다.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마치 그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말이다. 나 역시 커다란 꿈이 있었고 그 당시 20살 무렵 즈음 나의 미래 설계를 하였지만 미래를 위해 준비해 온 아까운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야 말았던 한 순간이 있었다.

호랑이가 잡은 썩은 동아줄 그리고 내가 잡은 썩은 동아줄. 동아줄이 하늘로 올라가는 도중 땅으로 ‘뚝~’하고 떨어져 방황하던 나의 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희망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들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는 때에, 난 휴학한 학교에 적성에도 맞지도 않는 과에 복학시기를 기다리며 지루한 시간을 보내려 도서관에 들락날락하던 찰나. 나의 눈에 들어온 바로 ‘자원봉사가 모집’이라는 문구였다. “책상 앞에 앉았기도 지루한데 좋은 일이나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자원봉사. 그냥.. 그냥 한번 해본 일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하루 변하는 내 모습에 신기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그리고 한 달.. 난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하늘에서 이번에는 튼튼한 동아줄을 나에게 내려 주었다는 것을. 만약 오누이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다 떨어졌다면 썩지 않은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빌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 내려온 튼튼한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오누이처럼 다시 한 번 더 가진 나의 꿈을 위해 도전해 볼까 한다. 다른 사람보다 설령 뒤쳐져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뒤쳐지지 않았다. 난 이런 마음으로 현재 문헌정보학과에 편입학하여 같은 꿈을 만들어가는 동기들과 함께 열심히 학업에 임한다.

썩은 동아줄에서 떨어져 다쳐버린 나에게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준 도서관, 썩은 동아줄에서 떨어져 방황하던 나에게 또 다른 희망을 가져다 준 도서관, 이제는 더 이상 자원봉사자로써가 아닌 정식 사서가 되기 위해,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싸우고 있다.



주말 가족 여행지, 의령도서관

의령도서관 이용자_성은정

유난히도 추운 겨울 탓이었는지, 어느새 다가 온 봄 바람과 봄 햇살이 반갑기가 그지없는 3월의 토요일 오후. 봄기운을 가득 머금고 있는 햇살을 온 몸으로 받으며 딸아이와 길거리 데이트를 하면서 도서관을 찾았다. 밖이 흰하 보이는 유리창을 옆에 두고 딸아이와 나란히 앉아 책 속 여행을 즐기는 이 시간이 행복하다.

「의령도서관」은 작년 7월,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편의시설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찾아왔다. 지금은 새로이 단장한 도서관이 어느새 친숙해졌지만 처음 보았던 그 설레임이란... 하나의 열람실에서 네 개의 열람실로 이렇게 커지다니... 도서관에 발도장을 찍으면서 와~와~하는 감탄사가 절로 뿜어져 나왔다.

옛 도서관은 단지 책을 읽는 도서관이었다면, 새로이 단장한 도서관은 정보의 이용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표현을 해 본다. 1층과 2층에 짙게 채워져 있는 책을 보며 아이와 함께 행복함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란 생각에 참 즐거웠다. 또 어린이자료실에는 유아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이 함께 어우러져 주말에 가족이 함께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3층 강좌실에서 딸아이가 수강신청 때부터 기대하던 고학년 대상 논술수업을 하고 있다. 간간히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딱딱하게 생각했던 논술이 아니라 즐거운 책임기프로그램인 것 같아 내심 함께 즐겁다. 분명, 아이들과 어른들이 눈과 귀를 트이게 해주는 의미 있는 도서관이 되고 있다.

의령도서관이 책 읽고 공부하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문화와 정보가 함께 하는 도서관으로 인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도서관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활용하여 시간이 흘러도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센터로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나와 딸아이는 도서관으로 책 여행을 떠날 것이다.

랑가나단 도서관학 5법칙을 생각하며

의창도서관 사서_정우필

얼마도 되지 않은 일이지만, 과연 내가 무엇을 해나가야 할지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 졸업도 얼마 남지 않았던 때여서 우물쭈물할 시기도 아니었다. 도서관 서가를 기웃거리다가 우연히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이라는 책을 발견하고 읽게 되었다. 랑가나단은 도서관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정립해서 '도서관학의 아버지'라고도 말해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창한 것이 도서관학 5법칙이었다. 수업시간에도 자주 들었던 것이 랑가나단과 그가 주창했던 5법칙이었는데, 정작 그 5법칙을 주창한 원전을 읽는 것이 너무 늦었던 것 같다. 그만큼 내가 했던 공부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이라던가 하는 건 못 느끼고 있었다.

'한 권의 책을 읽고 나니 모든 게 뒤바뀌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씩스러운 일이 될 것 같지만, 그 한 권의 책이 사서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만큼 내 마음을 뒤 흔들어 놓았던 것인데, 그 도서관학 5법칙이란 것이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간명하다.

1. 도서는 이용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Books are for use)
2. 모든 독자는 그의 책(Every reader his or her book)
3. 모든 도서는 그것의 독자에게(Every book its reader)
4. 독자의 시간을 절약하라(Save the time of reader)
5.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A Library is a growing organization)

그런데 내가 도서관학의 5법칙을 읽고 사서라는 직업을 결정하게 되었는가하면, 단순히 보존만을 최우선으로 하고 제한된 사람에게만 이용이 허락되었던 시절의 도서관에서 도서관학 5법칙이 지향하는 이용이 중심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이행되는데 있어서 사서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사서들의 독려하는 랑가나단의 말을 잊을 수가 없다. "봉사는 당신의 본분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성과에 급급하지 마십시오. 실재이든 가상이든, 눈앞에 있는 것이든 먼 앞날의 것이든 어떤 보수에도 유혹되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십시오."

비록 도서관학 5법칙은 100여개의 도서관을 견학하고 온 랑가나단에 의해서 추상화된 법칙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현장에서 그 법칙이 내포하는 지향성을 수행하는 일이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갓 1년을 넘겼지만, 그 사이에도 그런 벽에 많이 부딪혔던 것 같다. 하지만 도서관학 5법칙 속에 담긴 도서관의 지향성은 여전히 가야할 길이고, 무엇보다도 회의라던가 무력감 따위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하나 읽으면 다시 기운이 솟아올라 활력이 된다. 랑가나단은 간혹 비틀거리는 사서들을 잊지 않았는지, "지식을 무지한 사람의 집 앞까지 운반하고 권리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교육하는 것. 이 봉사의 숭고함은 전 지구를 주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 사서들이 하는 일이 그만큼 값어치 있는 일이지만, 가시발길을 가는 것처럼 힘겹기도 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만 같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힘나게 하는 것은 저 도서관학 5법칙도 아니고, 랑가나단의 저 멋진 글귀가 아니라 이용자의 만족스러워 하는 미소와 작은 감사의 말인 것 같다.

‘리딩으로 리드하라’



고영진
경상남도 교육감

사람마다 책을 읽는 목적은 다양하다.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정보와 지적 유희를 얻으며, 깨달음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워 나가고, 살아보지 않은 삶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책은 워런 버핏, 카네기, 정주영과 같은 경영자부터, 알렉산더, 정조 등 희대의 국가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인류역사를 움직여 온 배경에 탄탄한 인문고전 독서 전통이 자리 잡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인문고전이란 역사와 철학, 과학, 예술 등의 분야에서 비약적인 혁신을 이뤄 낸 천재들의 저작이다. 인문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천재의 두뇌에 직접 접속하는 행위’이며, ‘인류의 스승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깊은 정신적 대화를 나누는 일’에 비유된다.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지성 / 문학동네

경남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는 리더로서 이 책을 접하며 인문고전을 남긴 천재들에게 개인지도를 받는 느낌이었다. 평범한 일상에서 하기 힘든 창의적 사고의 새로움을 느끼며,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시켜 세계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교육현장에 접목시켜 보고픈 욕심이다.

학생들의 잠재능력과 다양한 꿈을 키워 나가는 학교현장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이 책이 읽혀지길 바란다.

[유네스코 등재] 우리나라의 기록유산

기록유산이라고 하면 유명한 구텐베르크 42형 성경, 그림 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 안데르센 원고 및 서신처럼 문자로 이루어진 문서나 책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기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기록유산에 등재가 가능하다. 예컨대 베토벤 교향곡 9번, '숨프 전투' 다큐멘터리 필름, John Marshall Ju'hoan 부시맨 영화 그리고 비디오 컬렉션, 워미에르 형제동화 등 음성이나 영상기록물들도 다수 존재하기도 한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기록유산은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해례본, 불조직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 의궤,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동의보감으로 총 7개이다. 주변 일본과 중국에 비하면 기록문화 보호의식 및 수준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다. 일본은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현재 아무것도 없고 이미 기원전부터 기록문화가 시작된 중국도 등재된 것은 5개로, 그나마 청나라 이후의 것들 뿐이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기록유산을 만나보자.



1. 조선왕조실록 /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서울대 규장각 소장, 유네스코 1997년 등재)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조의 시조인 태조로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1392~1863)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책으로 총 1,893권 888책(총 6,400만 자)으로 되어 있는 오래되고 방대한 양의 역사서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의 정치, 외교, 군사, 제도, 법률, 경제, 산업, 교통, 통신, 사회, 풍속, 미술, 공예,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며, 역사기술에 있어 매우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은 역사기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선왕조실록의 기초자료 작성에서 편술까지 담당했던 사관은 관직으로서의 독립성과 기술(記述)에 대한 비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았던 전문 관료로, 사관의 기록은 군주라 해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었다. 실록이 완성된 후에는 특별히 설치한 사고(史庫)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사고의 실록들이 병화에 소실되기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재출간하거나 보수하여 20세기 초까지 정족산, 태백산, 적상산, 오대산의 4사고에 각각 1부씩 전하여 내려왔다. 정족산본 1,181책, 태백산본 848책, 오대산본 27책, 기타 산역본 21책을 포함해서 총 2,077책이 일괄적으로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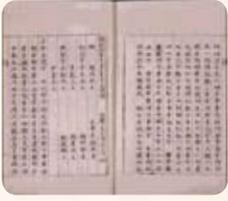
2. 훈민정음 해례본 / Hunmin Chongum Manuscript (서울 간송미술관 소장, 유네스코 1997년 등재)

훈민정음 해례본은 1443년(세종 25년)에 창제한 문자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음가 및 운용법, 해설과 용례를 붙인 책으로 조선 1446년(세종 28년)에 간행되었다. 전체 33장으로 이루어진 1책의 목판본(29.3cm*20.1cm)으로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다. 세종이 직접 훈민정음을 큰 글씨로 작성한 '예의(훈민정음 서문과, 새로 만든 문자 훈민정음의 음가 및 그 운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부분이 4장, 정인지의 비록한 신숙주·성삼문·최항·박팽년 등 집현전 8명의 학자들이 큰 글씨 부분을 작은 글씨로 해설한 '해례'부분 2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훈민정음이 상형원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되었으며 최근에 경북 상주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한글은 일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이 이미 존재하던 문자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고 독창적으로 새 문자를 만들어 한 국가의 공용문자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또한 새 문자에 대한 해설을 책으로 출판한 일 역시 역사적인 일이었다. 특히 문자를 만든 원리와 문자사용에 대한 설명에 나타나는 이론의 정연함과 엄정함에 대해서 언어학자들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 문맹퇴치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세종대왕상'을 주는 것은 이 책의 문화사적 의의를 나타낸다.



3. 불조직심체요절 하권 / Baegun hwasang chorok buljo jikji simche yojeol (vol.II), the second volume of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유네스코 2001년 등재)

'백운화상초록불조직심체요절'은 승려 백운화상이 75세였던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선종의 승려들에게 참선과 선관(禪觀)의 안목을 스스로 배우게 하고 법맥(法脈)을 계승케 하고자 상·하로 저술, 청주 흥덕사에서 1377년 7월 금속활자로 인쇄하였다. '직지심체'란 참선하여 사람의 마음을 직시(直視)하면, 그 심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뜻으로, 역대 고승들 간의 문답과 경전을 엮어 학승(學僧)들이 최고과정에서 배우던 교재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고종 때 주한 불란서 대리공사로 서울에서 근무한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가 수집해갔으며, 그 후 공동품수집가에게 넘어갔다가 1950년 프랑스국립도서관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하권만이 도서관의 동양문헌실에 특별 귀중본으로 보관되어있으며, 39장으로 이루어졌으나 첫째 장은 없고 2장부터 39장까지 총 38장만이 보존되고 있다. 직지심체요절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받은 동시에 원산지과 소유국이 다른 약탈 문화재들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1450년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 활자보다 약 73년이나 앞선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직지심체요절은 금속활자를 이용해 인쇄술을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교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모든 것은 책의 신속한 생산에 공헌했다. 또한 활자 인쇄술에 적합한 기름먹을 발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이 혁신한 실용적인 활판 인쇄술은 동양 인쇄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유럽등지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4. 승정원일기 / Seungjeongwon Ilgi,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서울대 규장각 소장, 유네스코 2001년 등재)

승정원은 조선 정종대에 창설된 기관으로서 국가의 모든 기밀을 취급하던 국왕의 비서실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승정원 일기는 정치부터 경제, 문화, 자연현상, 인사, 국왕과 관료의 동정, 국정 논의까지 광범위한 내용이 일기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 건국 초부터 정리되었으나, 조선전기 부분은 임진왜란 등으로 대부분 소실되었고 현재는 3,243책(글자수 2억4천 250만자)만이 남아있다.

조선왕조 최대의 기밀 기록인 동시에 사료적 가치에 있어서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비변사등록과 같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자랑할 만한 자료다. 또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할 때 기본 자료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실록보다 오히려 가치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음은 물론, 원본 1부밖에 없는 귀중한 자료로 국보 제303호(1999.4.9)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세계 최대 및 1차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9월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승정원일기」 원본은 보존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영인본 승정원일기」(국사편찬위원회 1961~1977 간행)와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철종2년(1851)부터 순종융희4년(1910)까지의 일기 필사본은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5. 조선왕조 의궤 / Uigwe: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서울대 규장각 소장, 유네스코 2007년 등재)

의궤는 조선왕조에서 유교적 원리에 입각한 국가 의례를 중심으로 국가의 중요 행사를 정리하여 작성한 기록물이다. 조선 시대 600여년(1392~1910) 동안 왕실의 주요 행사, 즉 결혼식, 장례식, 연회, 사신영접 뿐 아니라, 건축물·왕릉의 조성과 왕실 문화활동 등에 대한 기록이 그림으로 남아 있어 생활상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총 3,895여권의 방대한 분량에 이르는 의궤는 왕실의 주요한 의식이 시기별·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조선왕조 의식 변화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를 비교연구, 이해하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반차도, 도설 등 행사모습을 묘사한 시각 콘텐츠는 오늘날의 영상자료처럼 당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이런 시각중심의 기록유산은 뛰어난 미술장인과 사관의 공동작업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는 의궤의 체계적인 편찬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6.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및 제(諸)경판 / Printing woodblocks of the Tripitaka Koreana and miscellaneous Buddhist scriptures (경남 합천해인사 소장, 유네스코 2007년 등재)

고려대장경(팔만대장경)판은 81,258개의 목판에 새긴 대장경판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한 불교 대장경판으로 인도 및 중앙아시아 언어로 된 경전, 계율, 논서, 교리 및 불교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을 집대성하여 한 역한 내용과 더불어 중국어가 원문인 일부 문헌을 선정하여 수록하고 있다. 해인사에 소장되고 있는 고려대장경판과 불교의 경전과 역사, 계율, 판화 등을 담은 제(諸)경판 87,000여장의 목판은 1098년부터 1958년까지의 오래 시간에 걸쳐 완성된 경판들로서 국가제작판과 사찰제작판으로 나뉜다. 국가제작판은 고려대장경으로 81,258판 5,200여 만자에 달하고, 사찰제작판인 제(諸)경판은 5,987판이다.

고려대장경판은 이미 사라진 초기 목판제작술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한편, 고려시대의 정치, 문화, 사상의 흐름과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역사기록물이기도 하다. 경판 표면에는 옷질을 하여 글자의 새김이 760년이 지나도록 생생한 상태로 남아 현재까지 인쇄할 수 있을 정도이다. 고려대장경은 당시까지 동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던 모든 불교 경전의 내용을 집대성한 가장 방대한 문헌으로 동아시아지역 당대 최고의 경전이며, 아시아 전역에서는 유일하게 완벽한 형태로 현존하는 판본자료다.

※2011년은 '대장경 천년의 해'로 '2011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이 합천 해인사와 가야면, 창월 CECO 등에서 9. 23~11. 6까지 개최된다.



7. 동의보감 / Donguibogam: Principles and Practice of Eastern Medicine (국립중앙도서관 및 장서각 소장, 유네스코 2009년 등재)

동의보감은 선조 30년(1597) 임금의 병과 건강을 돌보는 어의 허준(1539~1615)이 선조의 명을 받아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학 서적을 하나로 모아 편집에 착수, 여러 의학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광해군 3년(1611)에 완성하고 광해군 5년(1613)에 간행한 의학 서적으로, 의학적인 지식과 치료기술에 관한 백과사전이다. 당시 동아시아의 발전 뿐 아니라, 19세기까지는 유래가 없었던 예방 의학과 함께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 보건정책에 대한 관념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는 등 많은 영향을 주었다. 총 25권 25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무활자로 발행, 현재 보물 1085호로 지정되어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의서라 하여 「동의보감」이라 명하였으며, 훈련도감 자본으로 발행되었다. 이 책은 중국과 일본에도 소개되었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한방의서로 인정받고 있다. 질병 치료와 관련해 정신적·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동양의 학의 '총체적 접근법'을 담고 있어 단순한 기술적인 가치를 넘어 사회적·철학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별난 도서관 별난 이야기



Take them to foghorn up on ovoids



▶ 도서관에서 책을 연체하면 죽음의 저주가?

도서관에서 책을 연체하면 연체료를 내거나 연체한 날짜만큼 책을 빌리지 못한다. 그러나 고대 도서관에서는 연체료나 대출정지 형태가 없는 대신 끔찍한 형벌이 있었다. 책에 낙서를 하거나 반납하지 않으면 신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문구가 있었다고 한다. 고대도서관에 있어 연체료는 죽음의 저주였던 것이다.

저주의 경고문

이 서판을 부서뜨리거나 물에 넣거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문지르는 자는 땅과 하늘과 아시리아의 모든 신들인 아슈르, 신, 샤마시, 아다드와 이슈타르, 벨, 네르갈, 니네베의 이슈타르, 아르벨라의 이슈타르, 비트 키드무리의 이슈타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무자비하고 끔찍한 그 저주는 그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되어 그의 이름과 자손을 땅에서 몰아낼 것이며, 그의 살을 개의 주둥이 속에 처넣을 것이다. (『고대 도서관의 역사 Libraries in the Ancient World』, 44쪽, 라이오넬 카슨 지음, 도서출판 르네상스, 2003년)

- ※ 아슈르 : 고대 아시리아 신화에 나오는 수호신
- ※ 샤마시 :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정의의 신
- ※ 아다드 :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판테온에 모셔진 위대한 기상신
- ※ 이슈타르 : 메소포타미아신화에 나오는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여신으로 미와 연애, 풍요와 다산, 전쟁, 금성을 상징
- ※ 네르갈 : 바빌로니아 아시리아의 신

▶ 중국의 도서관 이름이 우리나라 탤런트?

요즘 한국의 문화, 영화, 연예 콘텐츠 등이 다른 나라에서 인기를 얻는 한류열풍이 불고 있다. 1996년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중국 언론이 붙인 용어인 '한류'에 '열풍'이란 단어가 더해져 하나의 사회현상을 표현하는 신조어로 부상했다.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여러 나라에 배우준, 원빈, 최지우, 보아, 이영애 등이 한류열풍을 이끌고 있다. 중국의 한 작은 도서관이 우리나라 탤런트 '박시후'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지난 2월 26일 중국 상하이에서 박시후의 첫 팬미팅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중국 팬들이 이를 축하하기 위해 자진모금활동을 시작하여, 그 모금액으로 위난성의 한 초등학교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이름을 '시후 열람실'이라고 붙였다고 한다. 현지 학생들은 학교와 집이 멀어 부모와 떨어져 학교에서 생활해왔으며, 이제부터 학생들은 '시후 열람실'에서 여러 분야의 책들과 함께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또 해외 팬들은 '박시후' 이름으로 2009년 SBS '희망 TV 자선 모금 행사'에 500만원을 기부, 2010년 지진 피해를 입은 중국 지역 아동들에게 학용품과 책가방을 전달하는 등 좋은 일에 앞장서고 있다. 박시후는 <가문의 영광>, <검사 프린세스>, <역전의 여왕> 등으로 주목받았으며, 박시후를 비롯한 한류스타와 한류문화가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 책도 샤워를 한다고?

출판된 지 오래 된 책이나 페이지 사이에서 이물질·책벌레를 발견한 책, 책장을 넘기는 부분이 오염되어 변색이 된 책 등을 접할 때가 있다. 이럴 땐 직접 책을 샤워시켜 먼지와 세균을 없애보자~ Book Shower(북샤워)는 셀프 책 소독기로 자외선을 이용하여 박테리아, 바이러스, 효모, 곰팡이 등의 외부 세포막을 관통하여 세균이 생존, 증식하는데 필요한 DNA를 파괴하여 살균한다. 자외선은 약 253.7mm에서 강한 미생물 살균력을 갖고 있으나, 인체에 무해하며 책에 손상이 없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방법도 아주 간단하다. 책을 반으로 펼쳐 받침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 살균버튼만 누르고 기다리기만 하면 현 책이 새 책이 되어 나의 하루를 함께 할 수 있다.



▶ 보이는 건 책장뿐인 도서관!

일본의 도쿄에 위치한 무사시노미술대학(Musashino Art University)에는 책장으로 지어진 도서관이 있다. 2006년 신인 건축가 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일본 건축가 소우 후지모토가 설계한 것으로 'Forest of Books'의 컨셉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도서관의 크기는 6,500m²(약 2,000평)으로 목재를 주재료로, 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외관의 어두운 색 목재인 붉은 삼나무(900*300mm의 격자무늬)를 플로트 유리(19mm)로 밀폐하여 둘러쌌다. 구조상의 철강 구조물들도 책장 벽에 숨겨두고 보이는 모든 벽면은 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벽면의 구조는 책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접근성을 고려,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하였다. 실내에는 빛과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천장을 사용하였고, 밝은 색의 합판(베니어판)을 사용하여 독서공간에 빛을 균등하게 분산시켰다. 내부의 구조도 미로 찾기처럼 직선이 아닌 나선형으로 되어 있으며, 나선형 서가에서 보다 쉽게 찾기 위해 중간 중간에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 책으로 만든 안내데스크?

네덜란드 건축의 메카 델프트 공대에 독특한 조형물이 만들어져 화제다. 수천 권의 책을 쌓아 만든 안내데스크가 책이 가장 어울리는 장소인 도서관에 설치되었다. 더욱이 원뿔형 건물 디자인으로 설계된 건축 도서관에 만들어져 있어 더욱 시선을 모으고 있다.

도서관 입구 한 면을 차지할 정도로 부피가 큰 이 책 안내데스크는 책에 아무런 변형을 가하지 않고 순전히 쌓아올려만 만든 것으로 책을 재활용한 것이다. 각기 다른 크기와 색상을 지닌 책들이 조화롭게 맞물려 완성한 것으로, 수천 권의 책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질감은 일반 책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색다른 입체감을 준다.

▶ 2월 14일은 발렌타인 데이가 아니라 Library Lovers Day!

발렌타인 데이는 잊어라! 이제 2월 14일은 Library Lovers Day(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날)로 다시 불려지리라~

2011년 2월 14일 호주도서관정보협회(ALIA)가 중심이 되어 수세기 동안 있어왔던 발렌타인 데이 행사가 아닌 'Library Lovers Day'라는 이름의 이벤트가 개최되었다. ALIA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마크, 포스트 카드, 스티커 등을 배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도서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초콜릿 배부, 낭만적인 도서 전시, 빨간 풍선·깃발·꽃으로 꾸미기, 2월 14일에 해야 할 나만의 팸플렛 만들기, 로맨스 작가 워크숍, 모닝 차와 샌드위치 제공 등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및 행사가 개최되었다.

▶ 음악 읽어주는 도서관?

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곳으로 조용한 곳이다. 그런데 경상대 도서관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0분~40분(10분간) 도서관 로비에서 음악 콘서트를 개최해 음악 감상과 함께 해설도 제공하고 있다. 피아노를 비롯해서 첼로, 바이올린, 클라리넷, 오보에, 플루트 등 다양한 악기가 연주되고 음악교육과 교수가 해설도 겸해준다. 올해부터는 가야금부터 해금, 대금 등 국악 악기도 연주 될 예정이다. 도서관 로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공연을 듣는 학생도 있지만, 이제는 팬들이 많이 늘어 일부러 시간을 기억해서 도서관을 찾거나 열람실에서 내려와 클래식 음악을 듣고 머리를 식히는 학생도 많아졌다고 한다.

가까운 경상대에서 열리는 음악 콘서트! 목요일 도서관으로 가서 음악에 흠뻑 빠져보자~

주제별로 만나는 입문서

독서는 생각의 깊이와 폭을 넓혀주지만, 생소한 분야의 독서는 마음과 손이 쉽게 가지 않는다. 알기 쉽게 풀어 쓴 책들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만나 보자. 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식



지식 e, 1~6
EBS 지식채널 e/북하우스/2007

EBS '지식채널 e'에서 방송한 자료를 토대로, 희·노·애·락부터 이슬람어성의 히잡, 칸트철학까지 과학·사회·인간·교육 등 여러 분야의 개념을 재미있게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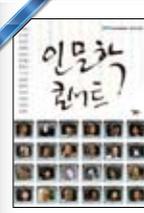
도서관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최정태/한길사/2008

희망의 기록을 보존하는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15곳을 소개한다. 서가와 책, 장서와 재미있는 일화, 최신현황 등을 곁들여 도서관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인문



인문학 콘서트, 1~3
김경동 외/이숲/2010

서로 다른 분야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문적 사고의 의미를 짚어보고, 교육과 윤리, 사랑과 성, 생명과 환경, 문화와 사회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소개한다.

철학



철학 콘서트
황광우/웅진지식하우스/2006

노자의 도덕경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까지 위대한 철학자 10인을 선별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철학의 대향연을 담았다. 동서양의 철학을 균형있게 바라보고 있다.

심리



그림으로 읽는 생생심리학
이소라/그리고책/2008

저자가 직접 그림을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 하는 사황을 55가지 상황별로 정리하고 심리학의 유명한 실험들을 생생심리와 접목해 풀어낸다.

경제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부키/2007

세계화와 부자, 경제이론 뒤집기,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원칙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명한 책과 영화를 소재로 하여 알기쉽게 풀어썼다.

인권



불편해도 괜찮아
김두식/창비/2010

청소년, 여성, 장애인 인권부터 노동자, 인종차별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약 80여 편에 이르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인용하며 인권을 풀어낸다.

과학



시크릿 스페이스
서울과학교사모임/어바웃어북/2011

나사, 전구, 거울 등의 오래된 생활용품에서부터 MP3, 에어컨, 하이패스, 레이저 등의 최신 생활기기까지 생활속에서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을 통해 과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천문학



꿈틀꿈틀 별이 살아있어요
노모토 하루요/한승/2009

대화 형식의 구성과 다양한 일러스트, 화려한 우주 사진을 통해 천문학 이론을 언급하지 않고도 쉽고 재밌게 우주의 비밀을 이야기한다. 천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수학



수학비타민 플러스
박경미/김영사/2009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달려도 늘 제 자리에 있는 이유, 주역과 60갑자, 그리스 철학자들이 수학을 공부한 이유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수와 기하학, 통계의 원리를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다.

환경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박경화/북센스/2006

핸드폰, 세탁기, 냉장고, 나무젓가락, 화장지 등의 물건들이 지구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 알려준다.

건축



건축, 생활속에 스며들다
조원용/창의체험/2010

건축을 생활 속에서 쉽게 이해하도록 이끌어준다. 하루도 빠짐없이 건축물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갔던 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사진을 곁들여 흥미롭게 풀어준다. 우리 고유의 건축인 한옥에 대해서도 다룬다.

미술



지식의 미술관
이주현/아트북스/2009

창작 양식이나 기법, 미술사, 정치, 사회적 사건이나 역사적 이슈 등 미술 관련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180여점의 명화들을 30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음악



금난새와 떠나는 클래식 여행, 1~2
금난새/생각의 나무/2006

딱딱하고 어려운 클래식, 료를 알면 누구나 흥미진진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한다. 금난새가 현장에서 다하지 못한 생생한 클래식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역사



세계사 카테일
역사의 수수께끼 연구회/웅진원스/2007

인류의 탄생에서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세계 역사에서 130가지 명장면을 골라 흥미진진한 에피소드와 궁금증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한다.

제7회

경남독서한마당 안내



1. 취지

독서를 통한 경남의 책 읽는 문화 확산으로 공동체 의식과 화합 유도

2. 운영내용

- ◎ 독서진흥행사 : 저자와의 만남, 특강, 공연, 전시, 책 만들기, 책 낭독회 등
- ◎ 공모전

부 분	형식 및 규격	비 고
글쓰기(독후감상문)	• 분량 - 원고지 5매/A4 1매(초등), 원고지 7매/A4 1매반(청소년), 원고지 10매/A4 2매(일반)	A4용지 작성 - 한글2002 이상, 굴림 12p. 줄간격 160
그림(독후감상화)	• 크기 - 8절 도화지(초등), 4절 도화지(청소년)	
가족독서신문	• 4절 도화지 1면(가족의 지면 참여인원수에 따라 가점 부여)	

• 접수기간 및 발표 : 2011. 7. 1. ~ 9. 30. / 발표는 10월 예정

• 문의 : 창원도서관 사서과 ☎055-278-2861

3. 경남독서한마당 선정도서

※ 도서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권장대상을 적어 놓았으니, 참고하십시오.

초 등

번호	서 명	저 자	권장대상	분 야
1	내 친구 조이	표지을	1, 2학년	그림책
2	헨리의 자유상자	엘린 레번	1, 2학년	그림책
3	할머니 집에서	이영득	1, 2학년	동화
4	책 읽어주는 로봇	정희성	2, 3학년	동화
5	스티커 토끼	가브리엘라 케셀만	2, 3학년	동화
6	분황사 우물에는 용이 산다	배유안	2, 3학년	동화
7	강치야 독도강치야	김일광	2, 3학년	동화
8	쫄뜨기 썸 쫄뜨기 썸	최종득	3, 4학년	동시
9	헨젤과 그레텔은 도형이 너무 어려워	고자현	3, 4학년	수학
10	내 친구는 얼굴색이 달라요	콜레트 엘링스	3, 4학년	그림책

번호	서 명	저 자	권장대상	분 야
11	당산 할매와 나	윤구병	3, 4학년	동화
12	어느 날 미란다에게 생긴 일	레베카 스테드	4학년이상	동화
13	사계	마르코 심사	4학년이상	음악
14	거짓말 학교	전성희	4학년이상	동화
15	봉주르 두르	한윤섭	5, 6학년	문학
16	생명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	정원각 외	5, 6학년	경제
17	토론하는 교실	여희숙	5, 6학년	인문
18	나의 어설플픈 영웅 안톤	제임스 말로니	5, 6학년	문학
19	피타고라스 구출작전	김성수	5, 6학년	수학
20	엄마의 슬픈 날	시리니 호마이어	5, 6학년	문학

청 소 년

번호	서 명	저 자	권장대상	분 야
1	불량가족 레시피	손현주	중등이상	문학
2	통계계사	김상훈	중등이상	역사
3	하리하라 미드에서 과학을 보다	이은희	중등이상	과학
4	판타스틱 걸	김혜정	중등이상	소설
5	같은 학교다	이보라	중등이상	수필
6	세 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거	강양구	중등이상	과학
7	가족표류기	M.H. 힐롱	중등이상	소설
8	맹자	장현근	고등이상	고전
9	가족입니다	김해원	고등이상	소설
10	소피의 세계	요슈타인 가아데	고등이상	철학

일 반

번호	서 명	저 자	분 야
1	내 젊은 날의 숲	김훈	소설
2	못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박완서	수필
3	서재 결혼시키기	앤 패디먼	수필
4	코스	정재승, 진중권	인문
5	죽도록 책만 읽는	이권우	인문
6	아름다움은 힘이 세다	페이로 페루치	인문
7	로지코믹스	아포스톨로스 독시아디스	수학만화
8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영웅 열전 1~2	이윤기	역사
9	3분 고전	박재희	자기계발
10	부모들이 읽는 아이들 생생 심리학	이소라	심리

독자 참여 코너

'도서관 가는 길' 19p의 '유네스코 등재 우리나라 기록유산'을 참고하셔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자 중 20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문 제

목판에 새긴 불교 대장경판으로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며, 올해로 만들어진 지 천년이 되는 우리나라 기록 문화재는?

응모방법

- E-mail접수 : whlay80@korea.kr
- 우 편 접수 : 641-843)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03(중앙동 106-3) 창원도서관 사서과 지원협력담당
- 문의 : 055-278-2851(보내실 때는 꼭 주소,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마 감

2011년 4월 30일

발 표

개인별 통지 및 '도서관 가는 길(18-2)'에 공지

지난 호 당첨자

지난 호 문제는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유도하기 위해 미국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 뿐만 아니라 게임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벤트는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정답은 '내셔널게이밍데이' 입니다. 응모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선정되신 20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렸습니다.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름	주 소	이 름	주 소
강어진	진주시 하대동	박지영	양산시 평산동
김소형	창원시 성산구	손순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김수정	거제시 옥포2동	신명숙	가창군 가창읍
김수현	통영시 서호동	신정영	진주시 상병동
김영만	창원시 마산합포구	유선영	하동군 북전면
김익현	김해시 대성동	이미자	창원시 성산구
문소란	고성군 고성읍	이태한	거제시 아주동
박경숙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희정	사천시 사남면
박선희	창녕군 남지읍	황경하	창녕군 남지읍
박영선	거제시 고현동	황정민	창녕군 남지읍

경남지역 공공도서관

- 거제도서관 ☎ 636-9211 / www.geojelib.or.kr
- 거제옥포도서관 ☎ 639-8250 / www.okpolib.go.kr
- 거제장승포도서관 ☎ 639-8260 / www.geojelib.go.kr
- 거창도서관 ☎ 944-8594 / www.gc-lib.or.kr
- 거창한마음도서관 ☎ 940-8470 / library.geochang.go.kr
- 경남점자정보도서관 ☎ 241-0023 / www.gnbl.or.kr
- 고성도서관 ☎ 674-1007 / www.gslib.or.kr
- 고성동부도서관 ☎ 670-2916
- 김해도서관 ☎ 320-5500 / www.gimhaelib.go.kr
- 김해진영한빛도서관 ☎ 330-4810 / lib.gimhae.go.kr
- 김해장유도서관 ☎ 330-7461 / lib.gimhae.go.kr
- 김해칠암도서관 ☎ 330-4591 / lib.gimhae.go.kr
- 김해화정글샘도서관 ☎ 330-2991 / lib.gimhae.go.kr
- 남지도서관 ☎ 526-1490 / www.njlib.or.kr
- 남해도서관 ☎ 864-5341 / www.nhlib.or.kr
- 남해화전도서관 ☎ 860-3864 / www.hjlib.or.kr
- 마산도서관 ☎ 241-9301 / www.masanlib.or.kr
- 마산합포도서관 ☎ 225-7441 / www.cwcl.or.kr
- 마산회원도서관 ☎ 225-7461 / www.cwcl.or.kr
- 마산내서도서관 ☎ 225-7481 / www.cwcl.or.kr
- 밀양도서관 ☎ 353-6977 / www.mlib.or.kr
- 밀양시립도서관 ☎ 355-5832 / www.myclib.or.kr
- 사천도서관 ☎ 853-8400 / www.salib.or.kr
- 산청도서관 ☎ 973-2544 / www.sanlib.or.kr
- 삼천포도서관 ☎ 835-4436 / www.scplib.or.kr
- 양산도서관 ☎ 385-7003 / www.yangsanlib.or.kr
-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웅상도서관(구 양산시립도서관) ☎ 386-6603 / www.uslib.net
- 의령도서관 ☎ 572-0941 / www.urlib.or.kr
- 진동도서관 ☎ 271-8144 / jindonglib.or.kr
- 진양도서관 ☎ 761-2722 / www.jy-lib.or.kr
- 진영도서관 ☎ 345-1995 / www.jylib.or.kr
- 진주도동어린이도서관 ☎ 749-2324 / www.jinjulib.or.kr
- 진주비봉어린이도서관 ☎ 749-2327 / www.jinjulib.or.kr
- 진주서부도서관 ☎ 749-4710 / www.jinjulib.or.kr
- 진주연암도서관 ☎ 749-2490 / www.jinjulib.or.kr
- 진주어린이전문도서관 ☎ 749-2525 / www.jinjulib.or.kr
- 진해기적의도서관 ☎ 547-0095 / www.jhml.or.kr
- 동부도서관(구 진해동부서관) ☎ 225-7531 / www.cwcl.or.kr
- 진해도서관(구 진해중앙서관) ☎ 225-7521 / www.cwcl.or.kr
- 창원도서관 ☎ 532-9501 / www.chlib.or.kr
- 창원고향의봄도서관 ☎ 278-2800 / www.changwon-lib.or.kr
- 창원의창도서관(구 창원시립도서관) ☎ 225-7371 / www.cwcl.or.kr
- 창원상남도서관 ☎ 225-7331 / www.cwcl.or.kr
- 창원성산도서관(구 창원성주서관) ☎ 225-7411 / www.cwcl.or.kr
- 통영도서관 ☎ 225-7391 / www.cwcl.or.kr
- 통영시립도서관 ☎ 648-8091 / www.tylib.or.kr
- 통영산양도서관(구 통영농어촌공공도서관) ☎ 650-2550 / www.tongyeonglib.or.kr
- 통영육지도서관(구 육지농어촌공공도서관) ☎ 650-2500 / www.tongyeonglib.or.kr
- 하남도서관 ☎ 650-4580 / www.tongyeonglib.or.kr
- 하동도서관 ☎ 391-1849 / www.hlib.or.kr
- 함안도서관 ☎ 882-5958 / www.hdlib.or.kr
- 함양도서관 ☎ 583-6920 / www.hamanlib.or.kr
- 합천도서관 ☎ 963-3186 / www.hyllib.or.kr
- 합천도서관 ☎ 932-0521 / www.hc-lib.or.kr